

## '명품도시' 인천을 전시한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도시' 그 자체가 테마입니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인천과 한국의 역사·문화·관광 등을 홍보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도시개발을 앞당겨

동북아 허브도시, 세계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 기 간 : 2009년 8월14일(금) ~ 11월1일(일) 80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전역 (주전시장 : 송도국제도시 3공구 일원)
- 행사성격 : 비즈니스와 페스티벌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 엑스포

Good Morning  
**INCHEON**

# 서민들의 애환 깃든 부두의 비릿함



이철명 作 · 종이에 물감 채색 · 73.0cm×52.0cm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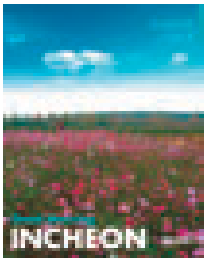
1949년 봄 동산중학교 2학년 때 미술반 친구들과 연안부두에서 사생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연안부두는 인천역 바로 뒤에 있었고 청관과 자유공원이 있어 사생하기 좋은 곳이었다. 앞에 월미도가 보이며 노를 젓는 돛단배와 연락선이 드나들고 선술집도 있어서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곳. 그리고 생선을 경매하던 작은 포구가 연안부두였다.

지금의 연안부두는 그 때와는 사뭇 다르고 세계의 선박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어렸을 때 맡았던 냄새 때문일까? 이따금 소재를 생각하고 연안부두를 찾는다. 어선들, 여객선들이 들락날락거린다, 어획물을 내린다, 얼음을 뿌린다, 차에 싣는다... 어부들이 땀에 찌든 모습을 지금도 본다. 수채화를 해 온지 수 십 년. 인천의 포구를 그리는 것이야 말로 직성이 풀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 이철명 -

##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COVER  
코스모스 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 contents September 2007 통권 165호



- |    |                                   |                         |
|----|-----------------------------------|-------------------------|
| 04 | 인천 느끼기                            | 송도공원 & 월미공원             |
| 08 | View                              | 청라지구 개발                 |
| 10 | 가을을 즐긴다                           | 9월 축제                   |
| 14 | 그린인천                              |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
| 18 | 영어자유도시 인천                         | 공무원 영어교육                |
| 22 | 굿인천 굿뉴스                           | '아시아 최초, 중동문화원 개원' 외    |
| 26 | 시의회 소식                            | '태국 방콕시의회와 우호교류협력 체결' 외 |
| 28 | 제7회 인천바로알기 증주대회                   | 인천 땅을 밟고 마음에 새긴, 7일     |
| 29 | 모닝커피 한 잔                          | 노인을 보는 눈                |
| 30 | 인천이 담긴 詩 ⑨                        | 손선희의 '부두'               |
| 32 | 자매도시 우호도시 ⑥                       | 이스라엘 텔아비브               |
| 33 | Healthy Life 건강백세                 | 전립선비대증과 오해              |
| 34 | 생활법을 아하 그렇군요                      | 상속포기를 할까, 한정승인을 할까      |
| 35 | 김치찰락                              |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외       |
| 36 | 인천 200% 즐기기                       | 박물관 옆 기념관               |
| 40 | 이달의 공연                            | '더 플라워 공연' 외            |
| 41 | 인천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 '채구희, 독무' 외             |
| 42 | 2007 Incheon World Opera Festival | '카르멘&라 트라비아타'           |
| 43 | 브리핑                               | 인천아트센터 건립 계획            |
| 44 | 현장 리포트                            | 청소년 보훈캠프 · 독립군 체험캠프     |
| 45 |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과학상설전시관                 |
| 46 |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인천여성오페라단장 임미희 씨         |
| 50 | 독자글 마당                            | 이번달 주제 '추석'             |
| 52 | Info Box                          | '물사랑사진 공모전 열립니다' 외      |
| 58 |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하는 '전어'   |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9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 김정식(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1

# 도심 속 공원, 푸른 休

인간에게 자연은 영원한 노스텔지어.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푸른 숲,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자연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우리시는 지금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꿈꾸며 도시에 푸른빛을 칠하고 있다. 삶에 한점의 섬표를 찍고 싶다면, 최근 조성한 송도공원과 전통정원지구를 새로 연 월미공원으로 향하자. 멀지 않은 그 곳에 자연이 푸르게 빛나고 있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02

- 01 해돋이공원 정보의 바다
- 02 미추홀공원 화인정
- 03 해돋이공원 전경
- 04 새아침공원 자전거도로
- 05 미추홀공원 전경



03

## 경제특구 속 휴식특구, 송도공원

아무리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고 발전을 거듭한들 자연이 없다면 삶은 공허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민들은 행복하다. 현재 우리시는 도심 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송도국제도시 2·4공구에 조성한 송도공원은, 142만2천㎡규모로 해돋이·미추홀·새아침·신송·달빛공원 등 근린공원 5개와 어린이공원 6개, 잔디광장,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해가 솟아오르는 송도를 상징하는 '해돋이공원(근린1호)'은 송도공원의 중심축이다. 공원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규모에 놀라고 푸르디푸른 자연에 또 한번 놀란다. 공원 입구에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공원 중간 중간에는 꽃이 핀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공원 중심에는 인공연못 '정보의 바다'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으며 공원을 아우른다. 한편에는 정보의 바다에서 파낸 흙을 쌓아올려 만든 '송도동산'이 있다. 정상에 오르면 공원은 물론 나날이 발전하는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품을 수 있다. '중앙광장'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쉼터이자 놀이터. 최첨단 음악분수와 야간조명,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밤낮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신송중학교 쪽으로 다리를 건너면 '신송공원(근린6호)'이 나온다. 산책길을 따라 느티나무, 산벚나무, 패랭이꽃 등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어 자연을 누리기 충분하다. 또 자전거도로와 체력단련시설이 있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04



05





신송공원을 지나면 체육을 테마로 조성한 ‘새아침공원(근린5호)’이 나온다. 자전거도로가 나있고 테니스장과 X-game장 등 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마음껏 운동하며 땀 흘릴 수 있다. X-game장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다이내믹하게 스케이트를 타기는 어렵지만, 청소년이나 아이들의 놀이장소로 손색이 없다. 그 밖에 송도의 생태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생태교육관이 자리하는데 이는 올 하반기에 개관한다.

새아침공원과 연계된 ‘달빛공원(근린23호)’은 밤하늘의 달빛처럼 꿈과 낭만이 깃든 생태공원이다. 인천대교 교각이 있는 1·3공구 외곽부터 송도1교를 지나는 길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살려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했다.

해돋이공원에서 한 블록 떨어진 송도국제도시 중앙부에 있는 ‘미추홀공원(근린2호)’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전통공원이다. 비류건국신화를 바탕으로 인천의 고대 독립국가인 미추홀왕국의 역사를 구현해 냈다. 미추홀 바다를 시작으로 누각, 전통문화관, 다원 순으로 공원을 거닐어 보자.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고전적인 정취에 젖어들 것이다. 공원 곳곳에 소나무와 야생초가 자라고 있어 푸른 휴식은 덤이다.

#### ➔ 떠나기 전, 미리 알아두세요!

**편의시설** : 곳곳에 쾌적한 시설의 화장실이 조성돼 있다. 단, 그 외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도시락을 싸 가는 것이 좋다.

**교 통** : 동막역 3번 출구에서 송도신도시로 가는 버스 6, 6-1, 8번을 타고 해돋이 공원에서 하차 (원진운수 : 518-7110, 대인교통 : 507-5939)

**개장시간** : 24시간 개방

**문 의** :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과 ☎ 453-7282



####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월미공원

문득 자연이 그리워지면 월미산으로 향하자. 월미산은 군사통제구역으로 묶여 50여년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다가 2001년에서야 속살을 드러냈다. 그 때문에 숲이 공원의 절반을 차지하며 259종에 이르는 식물과 각종 동물이 살 정도로 자연이 온전히 보전돼 있다. 공원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이 안 되는 거리. 기왕 자연을 찾았으니 빠르게 걸을 필요 없다. 개쑥부쟁이, 구름버섯, 곤줄박이 등 희귀 동식물과 인사를 나누고 폭신한 흙의 감촉을 느끼며 자연의 정취에 젖어보자. 걷다가 힘이 들면 잠시 쉬었다 가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시원한 물을 들이키면 이 곳이 바로 천국이다.

정상에 오르면 인천항이 펼쳐진다. 배에 오르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는 자동차들과 위용 넘치는 선박들, 희망으로 울려 퍼지는 뱃고동 소리. 인천의 꿈이 광활한 바다를 건너 세계로,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맑은 날이면 영종도와 용유도까지 한눈에 품을 수 있다. 전망 포인트는 월미산 정상과 예포광장 그리고 23미터 높이의 유리전망대. 2005년 세워진 전망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조망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밤에는 조명을 뿌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늘, 바다, 산이 어우러진 월미공원. 하지만 월미공원의 백미는 올 9월에 개장한 한국전통 정원지구다. 월미도는 백제시대 이후 중요한 교통로였고, 조선시대에는 한양을 지키는 군사요지였으며, 개항기에는 외국선박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 머무는 첫 기착지였다. 전통정원



지구는 월미도의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깃든 공간으로, 행궁(行宮)이 있던 조선시대의 정원양식을 재현했다. 공원은 궁궐정원, 별서정원, 민가정원으로 이루어진다. 궁궐정원에는 창덕궁 후원, 연못 부용지와 연꽃이 가득한 못 애련지 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펼쳐져 있다. 별서정원에는 전남 담양의 소쇄원과 경남 함안의 국담원 등이 고즈넉하게 드리워져 있다. 자연 안에서 관조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옛 선비의 여유와 기품이 느껴진다. 민가정원에는 안동 하회마을의 종가인 양진당을 비롯해 전통민가가 재현됐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서민들의 농가로, 흙으로 만든 집과 농작물이 싱싱하게 영그는 밭, 원두막이 있는 풍경에서 소박한 한민족의 정서가 전해진다.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도심 속 쉼터. 하지만 이것이 월미공원의 다는 아니다. 2010년까지 월미행궁과 월미성을 복원하고 근대군사체험지구, 어촌체험지구, 이민사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월미공원은 삶의 휴식처이자 인천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

#### ➔ 떠나기 전, 미리 알아두세요!

**자연학습 프로그램** : 자연학습을 하고 싶으면 월미산지기 카페(<http://cafe.daum.net/wolmizikim>)에 신청한다. 월미공원 자연봉사자들이 친절히 공원을 안내해 준다. 자연학습은 매주 목·토요일에 진행하며 가족단위나 단체로 4명에서 2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편의시설** : 공원 내 매표, 화장실, 벤치 등 편의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

**교 통** : 인천역에서 버스 2, 15, 23, 45번을 타고 선창산업 또는 월미도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개장시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문 의** :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 765-4131~3



- 01 미추홀공원 냇가
- 02 궁궐정원 부용지 전경
- 03 궁궐정원 부용정
- 04 궁궐정원 국담원과 화환정

# 푸른 보석, 청라의 꿈이 빛난다

청라지구에 희망이 영글고 있다. 월드트레이드센터(WTC) 건립이 추진되면서 국제비즈니스도시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테마형 레저·스포츠 단지, 대규모 지하도시 등의 조성계획도 세워지고 있다. '파란 섬'이란 의미의 청라도(靑蘿島). 이제, 세계적인 금융·레저도시로 푸르게 빛날 날도 멀지 않았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자료제공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서구의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17.8km<sup>2</sup>에 이르는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그 광활한 대지가 희망으로 일렁이고 있다. 과거 여러 개의 섬이었던 청라지구는 1992년 매립공사를 통해 새로운 지도를 그렸으며,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송도, 영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라지구.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GM대우 R&D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월드트레이드센터(WTC) 건립이 추진되면서 세계적인 금융·레저 도시로의 꿈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 Vision 1 국제 금융·무역 허브를 꿈꾸다

2015년 청라지구에 77층 WTC를 중심으로 업무시설, 문화시설, 외국인전용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비즈니스 복합단지가 건설된다.

청라지구 개발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7월 26일 사업발표회를 열고 WTC청라 컨소시엄과 79만2천m<sup>2</sup> 규모의 국제 금융·업무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I-port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사업에는 총 5조7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15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공사와 WTC청라 컨소시엄은 올해 안에 토지매매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WTC에는 세계 최대의 민간무역기구인 세계무역센터협회(WTCA)가 입주해 청라지구를 동북아 금융·무역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3천200여억원의 생산효과와 8천2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토지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중앙공원 지하에는 122만1천여m<sup>2</sup> 규모의 지하도시가 조성된다. 업무단지와 연결되는 지하도시에는 보행로를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 스포츠·레저시설, 쇼핑몰, 영화관 등이 들어서고, 지상에는 북한의 개성지역까지 조망할 수 있는 450m 높이의 시티타워가 세워진다.

## Vision 2 첨단 산업단지를 품다

GM대우 R&D시설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미 자동차의 주행기능을 검사하는 자동차성능시험장(CTT)과 R&D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자동차를 개발하고 검사하는 연구시설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9월이면 연구사업을 시작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중으로 청라기술연구소가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우리시는 이를 위해 50만7천여m<sup>2</sup>의 땅을 매입해 GM대우에 무상임대료 제공했다. 더불어 우리시는 R&D시설 부지 주변에 145만2천m<sup>2</sup> 규모의 하이테크파크를 조성해, 첨단산업을 연구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부지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 ▶ 청라지구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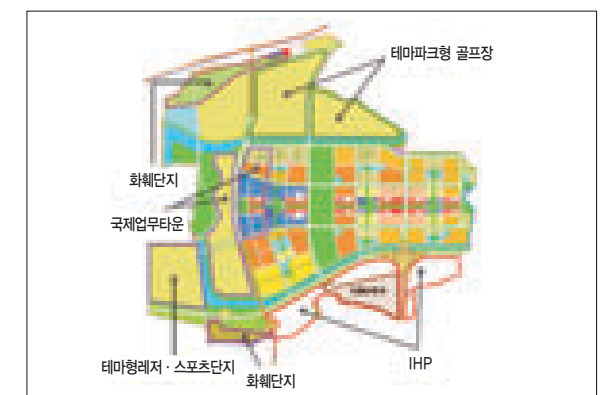
사업목적 : 국제업무·주거·문화·레저가 복합된 비즈니스도시 조성  
위 치 :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원  
사업규모 : 17.78km<sup>2</sup>  
계획인구 : 9만명(3만1천여세대)  
시 행 자 : 인천시,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 등  
사업기간 : 2003년 8월 ~ 2012년 12월  
사 업 비 : 6조 151억원

## Vision 3 '한국의 베니스' 된다

청라는 주운(舟運)시설을 도입해 세계적인 휴식공간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청라지구 내 6km에 이르는 하천은 중앙호수공원과 연결돼 도심과 바다를 잇게 된다. 공원 주변에는 폭 15m의 수로가 조성돼, 바다와 수로를 오가며 관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일명 한국의 베니스가 되는 것이다. 그 밖에 청라 남서쪽 79만2천m<sup>2</sup>에 아시안 걸쳐파크, 레포츠파크, 아쿠아파크 등을 품은 테마형 레저·스포츠 단지가 들어서고, 북쪽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골프장(27홀)과 골프아카데미 등 부대시설(151만8천m<sup>2</sup>)을 갖춘 테마형 골프장이 지어진다. 청라는 고품격 관광·레저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을 개발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농업물류와 농업기술센터, 휴양체험장 등을 갖춘 69만3천m<sup>2</sup>의 화훼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 Vision 4 뛰어난 접근성

송도, 영종과 함께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강국으로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청라지구. 수도권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청라의 장점이다. 청라는 서울 중심지에서 3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시간은 30~40분 내외다. 또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와 공항철도가 가까이 있으며, 향후 경인고속도로가 청라지구를 관통하면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게 된다. 앞으로 수도권 배후시장을 활용하고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주거지 건설에 대한 관심도 높다. 청라는 오는 2012년까지 아파트와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3만1천여가구를 건설해 9만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





# 오감(五感)을 열면, 축제가 즐겁다

가을이다. 하늘은 드높고 햇살은 찬란하다. 온 세상이 탐스럽게 무르익는 가을, 그 안에 축제가 있다.  
풍성한 음식과 흥겨운 음악, 다채로운 행사가 넘치는 일상탈출의 장 그리고 그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사람들...  
가을이라서 더 풍요롭고 즐거운 축제 속으로 떠나자.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제9회 강화고인돌문화축전 선사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10월 4일(목)~7일(일) · 강화군 고인돌공원 및 강화군 일원

강화는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에서 열리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전은 고인돌을 비롯해 선사시대의 문화를 몸소 접할 수 있는 축제.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전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북방식 지석묘가 있는 부근리 고인돌광장에서 열린다.

**取** 강화고인돌문화축전에 가면 단순히 유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를 보고 느끼고 마음에 담을 수 있다. 책으로만 보던 빗살무늬토기와 석기를 만들고 불씨를 지피며 자연스럽게 선사문화를 체험해 보자. 그 외에도 고인돌 삼행시짓기, 고인돌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

**樂** 다채로운 공연과 각종 문화행사도 가득하다. 철저한 고증을 거친 철종임금 등극 행렬이 재현되며,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문화 퍼레이드가 열려 생생한 즐거움을 전한다. 또 봉산탈춤을 비롯한 우리 전통극과 퓨전극, 난타, 점프 등 현대극이 펼쳐져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味** 맛깔스러운 강화 먹거리와 만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축제기간 동안 강화 농·특산물 장터 및 음식체험마당이 펼쳐져 강화의 맛을 마음껏 음미할 수 있다. 또 강화의 유명한 특산물인 강화순무 요리경진대회가 열려 요리실력도 뽐내고 강화순무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 문의 :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 930-3623 | [www.ghgoindol.com](http://www.ghgoindol.com)



## 제4회 능허대축제 역사를 알고 미래를 열다

10월 5일(금)~7일(일) · 옥련동 능허대공원 일원



능허대(凌虛臺)는 백제시대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신이 교류하는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능허대축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다. 10월 5일 연수구민의 날과 연계해 올해로 네 번째로 열리는 능허대축제는, '교류와 소통, 새로운 공동체,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옥련동 능허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視** 능허대축제는 사신행렬을 시작으로 막을 연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와 교류하던 중국사신단을 재현한 것으로, 취타대를 선두로 행렬단, 풍물패 등이 시가지를 행진하며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행렬구간은 해양과학고에서 축제행사장까지 1km다. 이 외에도 백제왕, 장수, 사신 등 백제시대 사람들이 입던 의상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의상을 직접 입고 기념촬영을 할 수도 있다.

**樂** 신나는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도 축제의 흥을 돋운다. 연수구민노래자랑은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본선에 진출하면 상이 주어진다. 예선은 9월 29일에 연수구 대강당에서 본선은 10월 7일에 능허대축제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그 밖에 라디오특집공개방송, 민속놀이마당, 중국전통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축제기간 내내 펼쳐진다.

**取**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줄넘기,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 등 전통 민속놀이의 장이 펼쳐지며,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기네스 수상자로 선정한다. 책으로만 보던 전통문화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전통문화 외에도, 어린이경제체험마당, 역사퀴즈왕선발대회, 연수구민 단축마라톤 및 가족걷기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 한다.

■ 문의 :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 ☎ 810-7761~4

## 제6회 인천음식문화축제 맛과 멋, 즐거움의 향연 속으로

10월 5일(금)~7일(일) ·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북성동 자장면,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 신포동 쫄면... 하늘은 높고 사람은 살찌는 천고인(人)비의 계절,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인천의 대표 먹거리가 한데 모였다.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흥겨운 축제의 장, 인천음식문화축제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 열린다.

**味** 인천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 시작한 인천음식문화축제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다. 그동안 인천의 유명 음식점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 특색음식 경연대회 등을 열어 인천을 대표하는 음식축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가 된다. 이번 축제에는 드라마 대장금 속에 나오는 궁중음식, 한의학에서 일컫는 사상체질별 음식과 오방색 음식 등 전통음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視** 인천음식문화축제는 미각은 물론 시각까지 충족시킨다. 대장금 궁중음식 전시회는 보는 것만으로도 전통음식 고유의 감칠맛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음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불러도 좋을 설탕공예 작품 전시회도 시선을 붙잡는다. 몸에 좋은 식단을 제시하는 좋은 식단 모형 전시는 보는 재미는 물론 건강까지 챙기니 더욱 좋다. 그 외 세계 각국의 제과·제빵 전시, 인천의 특산물 전시 등 각종 볼거리가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取** 멋과 맛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웃과 허물없이 하나되는 것이야말로 축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인천음식문화축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한다. 케이크 만들기, 생크림 높이 짜기, 반죽 길게 늘리기 등 온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도 풍성하다. 이 밖에 창작요리 경연대회, 영양상태 진단, 체지방 측정 등 음식과 영양에 관련된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된다.

■ 문의 : 시 위생정책과 ☎ 440-2762



## 제20회 인천노동문화제 마음으로 느끼는, 노동문화예술축제

9월 7일(금)~9일(일) ·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문화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1988년 ‘인천지역 노동자 문화대잔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인천노동문화제는, 정당히 일한 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축제를 연다. 올해로 스무 회를 맞는 인천노동문화제는 그동안 다양한 노동문화예술을 선보이며, 노동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의식 있는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놀이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感** 올해 인천노동문화제는 지나온 노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문화운동 정책토론회를 열어, 노동문화운동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끌어내고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19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 인천노동문화제 20년 사업단’을 구성해 노동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노동문화제를 통해 건강한 땀방울의 가치를 생각하며 마음에 느낌표를 찍어 보자.

**樂** 노동문화제라고 해서 딱딱한 축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천노동문화제는 그동안 건강한 노동의 가치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살아있는 축제의 장을 펼쳐왔다. 올해는 인간적인 삶을 역동적인 춤과 영상으로 풀어낸 창작기획공연극 ‘밥과일 20’이 무대에 오른다. 노동자풍물패가 벌이는 풍물대동궁 한판도 축제의 흥을 돋운다. 그밖에 음악회, 퍼포먼스 등이 펼쳐지는 길거리 난장, 노래공연 철의 노동자 등 신명나는 무대가 선보인다.

**視** 전시행사도 다양하다. 「다이너믹 한국현대사」, 「노동만화전」, 「1987의 기억전」 등 노동문화단체와 활동가들이 노동문화의 자취를 되짚어보고 노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전시회를 연다. 또 노동자들의 질박한 삶과 투쟁의 의지가 담긴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노동미술굿 2007 프로젝트’가 열린다.

■ 문의 :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 874-1479 | <http://ilcf.co.kr>

※ 각 축제의 자세한 일정은 본지 57쪽을 참고하세요.

# 도심 숲 '올창' 명품도시 '화창'

우리시는 세계 일류 명품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과연 세계 일류 명품도시의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것을 첫 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무와 숲임도 분명한 사실이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01

## 도시 경쟁력, 생명의 숲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 살기좋은 환경도시, 푸른 인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는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757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우리 주위에서 푸른 나무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인천에 나무가 적다고 느끼는 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도심 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힘을 모으는 사업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



02

하는 공원과 녹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각종 국·공유지와 남는 공간을 활용한 숲 조성 사업에 힘을 기울인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옥상녹화, 대지 안의 조경 조성 등 건축주가 법정 면적 이상으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추진한다.

우리시가 이처럼 힘을 기울인 결과 2007년 6월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169만㎡가, 민간부문에서는 22만 7천㎡가 녹지로 조성됐다. 이렇게 사업이 착착 추진되면 시민 한 명이 누릴 수 있는 공원과 녹지 면적은 8.9㎡에서 11.2㎡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본부세관의 두바이 프로젝트

인천항에서 곡물을 가득 실은 차량이 폴폴 먼지를 풍기며 도로를 질주하고, 철근을 실은 커다란 트레일러가 굉음을 내며 그 뒤를 쫓는다. 부두에서 날아온 곡물과 사료가루가 날아와 자동차와 책상 위로 내려앉는 곳. 인천항 부두 옆에 자리 잡은 인천본부세관의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다. 각종 밀수와 마약 범죄 등을 연상시키는 세관의 이미지는 시민들에게 다소 딱딱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회색빛 건물을 빙 둘러싸고 있는 붉은 벽돌과 검정색 철 담장은 위압적이기까지 했다.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3월 27일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 숲 조성(일명 두바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한걸음 바짝 다가섰다. 인천세관이 우리시의 지원을 받아 담장을 허물고 청사의 여유 공간, 사용하지 않고 버려둔 테니스장 등을 활용해 도심 속 생태 숲을 가꾼 것이다.

총 면적 8천950㎡의 생태 숲에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는 해송과 메타세쿼이아 등 나무 900 그루를 옮겨 심고 인공 연못까지 조성했다. 여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받은 1억5천만원과 세관 자체사업비 1억5천만원 등 불과 3억 원의 비용이 들었을 뿐이다. 하늘은 갑작스레 시작된 사업이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인천세관을 도왔다. 인천공항 개발사업이 한창인 을왕산에서 나무 대부분을 기증받고, 직원들이 재개발지역을 돌며 발품을 팔아 굵직굵직한 나무들을 얻어다 옮겨 심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03

04



01. 02 계양구 봉화로 가로녹지  
03 인천본부세관 시민의 숲  
04 잔디밭으로 환골탈태한 테니스장



여기에 세관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땀방울이 힘을 보탰다. 직원들은 일손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달려 나와 마당의 흙을 고르고, 잔디를 심고, 나무를 옮겨 심고 휴일이면 순번을 정해 일손을 도왔다. 시민의 숲을 가꾸느라 미처 하지 못한 일은 야근으로 채웠다. 이렇게 동원된 연인원이 1천500명에 달한다.

“나무가 많아지니 근무환경이 좋아진 것은 물론 결혼 기념으로 잔디를 심는 직원도 있고 여직원들은 직접 장미를 가꾸는 등 직원들의 관심도 아주 높습니다. 시민들은 담장 때문에 돌아 다녔던 길을 이제 잔디를 밟고 세관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산책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연 그대로 시민들이 밟는 길이 산책로가 될 것입니다.”는 것이 김재희 감사과장의 설명이다.

지난 7월 24일에는 시민의 숲 준공식을 갖고 이 아름다운 숲을 시민들의 몫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사업으로 관세청 혁신사례 발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렇듯 인천세관의 시민의 숲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생명의 숲 1천㎡ 가꾸기 사업의 최대 성공사례로 꼽을 만하다.



담장을 허물어 나무로 둘러싸인 인천본부세관

## 도로야, 산책로야? Green Road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남궁인숙(60세) 씨는 요즘 외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한 여름이라 집에만 있기 갑갑해 하는 아이를 데리고 그이가 자주 산책을 나가는 곳은 바로 집 앞의 봉화로다.

흔히 도로라고 하면 매연과 소음으로 산책은 꿈도 꿀 수 없겠지만 이곳은 좀 특별하다. 우리시가 지난해 3월부터 효성동에서 주부토길, 서운사거리, 부천시계에 이르는 4.9km의 봉화로에 가로 녹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1단계로 효성동에서 주부토길, 까치말사거리에서 서운사거리에 이르는 2.9km에 8만2천㎡에 달하는 가로녹지를 조성했다. 도로 중앙선 부근에 녹지폭 25m~79m에 달하는 공원이 조성된 것이다. 이곳에는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등 10만6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푸른 숲을 만들었고 길거리 농구대를 비롯해 운동시설, 의자, 바닥분수 등을 설치해 나무와 함께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공원으로 꾸몄다. 또한 주부토길에서 까치말 사거리에 이르는 0.5km와 서운사거리에서 부천시계에 이르는 1.5km의 도로는 2000년부터 양쪽 도로의 차선을 두개씩 줄이고 나무를 심어 녹지를 조성했다. 차로

가 줄어들고 11만8천㎡에 달하는 녹지가 생긴 덕분에 주민들이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 것은 물론 과속을 일삼던 차량들의 속도가 줄어들어 사고위험이 낮아지고 아울러 소음도 적어져 민원도 해결됐다.

“여기 숲이 생기니까 너무 좋죠. 산책하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요. 어찌나 좋은지 우리 동네할머니들끼리 잔디에 풀도 뽑고, 쓰레기도 줍고 한다니깐요.”라며 “우리가 못하는 청소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더 깨끗이 해 주어서 상쾌하게 산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남궁인숙 씨는 말한다.

우리시는 6차선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부족한 녹지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작전동 태화아파트에서 내려다본 봉화로

## 지렁이랑 친구하는 아이들, 학교 생태숲 만들기

요즘 학교들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다. 학교에 운동장이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나무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흙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구월서초등학교 아이들은 등교를 하면서 바로 숲과 대화를 시작한다. 교실로 갈 때는 운동장이 아닌 숲길을 지난다. 학교 옥상에는 개구리밥 등 풀이 자란다. 이 학교는 지난해 7월부터 우리시의 지원을 받아 옥상녹화를 시작해 전망데크, 관찰데크, 정원 등을 꾸몄다. 덕분에 아이들은 휴식시간과 등·하교 길은 물론 수업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옥상정원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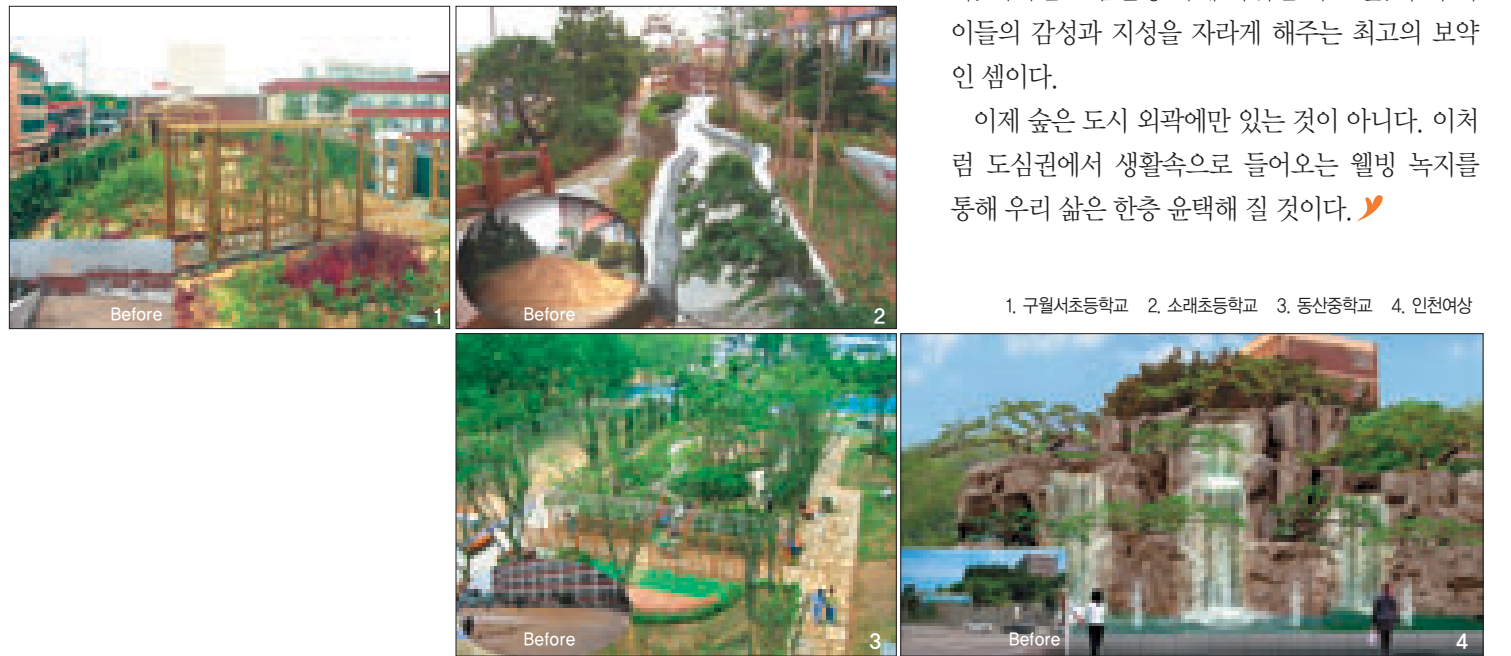
이처럼 도심에 고르게 분포해 있는 학교에 녹지를 많이 만들어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학생들의 정서가 순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은 숲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우리시는 2010년까지 시내에 있는 340개 학교에 생태 숲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32개 학교에 생태 숲 조성을 완료해 16만2천㎡의 녹지를 늘렸다. 해사고등학교는 담장을 허물었고, 동산중학교에는 소공원이 생겼으며 소래초교에는 수경시설이 자리 잡았다. 부원중학교는 교실 앞 통로를, 논곡초등학교는 진입로를 각각 푸르게 꾸몄다. 길을 가다 만나게 되는 인천여상 진입로변의 인공폭포도 바로 우리시가 추진한 학교생태 숲 사업의 하나다.

굳이 자료에 따르지 않더라도 학교에 숲을 만들면 정서함양은 물론 공부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아이들이 심성 곱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학교 생태 숲 가꾸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다. 삭막한 도심환경 속에 가꿔진 학교 숲. 우리 아이들의 감성과 지성을 자라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인 셈이다.

이제 숲은 도시 외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도심권에서 생활속으로 들어오는 웰빙 녹지를 통해 우리 삶은 한층 윤택해 질 것이다. 🌿



1. 구월서초등학교 2. 소래초등학교 3. 동산중학교 4. 인천여상

## 환경 녹지 투자, 우리시가 으뜸

우리시의 환경녹지분야 예산이 6개 광역시 중 최고치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시는 올해 총 예산 5조1천690억원 중 5천292억원을 환경녹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전체 예산의 10.2%를 할애할 계획이다. 이는 부산 9.9%, 대구 7.6%, 광주 6.8%, 대전 8.9%, 울산 6.9% 등 광역시는 물론 서울 4.2%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시의 환경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국·공유지 및 유휴 공간 녹지 등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늘리기 사업에 1천199억원을 투입해 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녹색공간을 확충해 세계일류명품도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English?

## Yes, We Can Do It!

우리시가 영어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는 시민과 학생이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로 하고 '영어 자유도시(Incheon Free English Zone)' 선포식을 가졌다. 동북아중심도시,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또 다른 노력이다. 그렇다고 2014년 까지 모든 시민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먼저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위해 애쓰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영어자유도시 선포식

### 공무원 영어 말문 틱우기

시청 혁신분권담당관실의 김종권 혁신기획팀장은 업무 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제임스(James)라는 이름이 그것이다. 지난 3월부터 영어 초급반에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갖게 된 이름이다. 주위의 동료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6시 30분이면 그는 영어 교재를 들고 시청 지하의 어학실로 향한다. 강의실에는 교육을 맡고 있는 엘리자베스(Elizabeth) 선생님이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그곳에는 벌써 시청은 물론 각 구청과 사업소 등에서 찾아온 공무원들로 강의실이 가득 차 있다.

김종권 팀장이 속해있는 영어교실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내 어학프로그램 중 하나다. 우리시는 시청에 3개의 어학실을 갖춰놓고 아침, 저녁으로 인천시 공무원 중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은 물론 업무 시간 이외에 이뤄진다.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가 아침반,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가 저녁반이다. 올 상반기에는 13개 반에서 213명이 수강해 어학 공부의 열기를 말해주었다.

특히 영어는 초급반만 5개에 이르고 중급반 2개와, 스크린·CNN·비즈니스영어반, 토익대비반 등 9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등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어, 특히 영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내에서 이뤄지는 수업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수강신청을 하면 철저한 레벨 테스트를 거쳐 반이 결정되고, 강의 중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들어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률. 김종권 팀장은 “특별히 외부 출장이 없는 날에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한다”며 출석률이 70% 미만일 때는 다음 과정으로 진급할 수 없어 출석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한다.



### 전문 교육으로 한 단계 레벨 업, 공무원교육원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외국어 야간과정을 운영한다. 씨티은행 경인 지역본부 지하 1층에서 운영되는 야간과정 역시 시 및 군·구의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기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됐고 9월 3일부터 2기가 운영된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선발에서부터 테스트를 통해 수준별 학습이 이뤄진다. 이 과정은 초·중급 수준의 어학실력을 중·상급으로 향상시켜 다음 단계의 교육으로 연계되도록 교육의 단계별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어는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외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 정예과정도 운영한다. 필기와 회화 테스트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올해는 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개월간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에서 각 20명씩 교육을 받고 있다. 영어과정의 경우 45명이 신청해 20명이 선발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 8월 14일 찾은 영어반 수업시간은 원어민 조 사무엘(Joe Samuel)강사와의 회화수업이 한창이었다. 강사가 한국말을 알지 못하니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 책 속의 그림과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수강생들이지만 제법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온다. 이처럼 교육은 매우 심도 있게 운영된다. 원어민과의 회화 수업을 비롯해 듣기, 말하기, 문법, 스크린 영어 등으로 하루 일정이 빠곡히 채워진다. 하반기에는 영어 '본토'로 체험학습을 떠나 실생활에서 언어를 익히는 과정도 마련된다. 입교만 하면 대충 때워도 되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선발 당시는 물론 과정 중간 중간 공인 시험을 치러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등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이 이 과정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청내 영어방송

요즘 시청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에 영어 한마디와 만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공무원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시작된 청내 영어방송이다.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이 가능한 영어방송이 직원들의 영어 학습 욕구에 불을 당기고 있다. 영어방송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차례씩 방송된다. 아침에는 15분 내외의 짬막한 생활영어가 흘러나온다. 특히 월요일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시의

굵직굵직한 소식을 영어 뉴스로 접할 수 있어 이채롭다. 점심에는 오후의 나른함을 달래줄 수 있는 팝 영어가 40분간 진행되고, 저녁에는 사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비즈니스 영어가 15분간 귀를 올린다.

방송이라고 해서 그냥 흘러듣기만 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해 청내 게시판에는 일주일치 관련 스크립트가 게시된다. 또한 원음을 재생해서 들을 수 있는 파일을 제공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복습을 할 수 있어 높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총무과 교육훈련팀의 설명이다.

## 실력을 뽐내보자,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숨어 있는 외국어 인재를 발굴하고, 공무원들의 외국어향상 의욕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가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무원의 자발적인 외국어 붐 조성을 위해 입상자 전원에게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되니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외국어경진대회는 지난 6월 27일 예선전을 치름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외국어 경진대회라고 해서 단순히 누가 말을 잘하고 발표를 잘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나뉘어 모두 39명이 참가한 예선전은 국제협력관실의 외국인과 외국어 전문 공무원의 평가로 원어민과의 면접, 원문읽기 등 실무 적응능력 테스트가 치러졌다. 예선을 통과한 이들은 본선 진출을 위해 국제화, 일반행정, 일상 생활부문의 주제에 대해 5분간 발표할 분량의 원고를 작성해 심사를 통해 각 언어별로 6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원고 심사, 원어민 면접, 발표 등 3단계의 테스트가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본선은 우리시의 첫 영어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로 9월 14일 가천길대학 강당에서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서는 시민과 토크하우스 클럽 회원 등이 참석해 공무원들의 영어실력을 직접 검증하게 될 예정이다.



## 왜 영어 자유도시 인천인가?

왜 우리 인천이 영어 자유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시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품격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곳, 미래도시의 기준이 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명품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영어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2009 인천세계도시 엑스포, 2014 아시안게임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시민과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함께 영어 구사능력을 갖추도록 사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의 모습이다.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이 만들어지면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 금융 등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고급인력이 상주하는 지식 집약형 허브의 구축이 가능해 진다. 또한 글로벌화 전략을 고도화 할 수 있어 우리시의 국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성공적인 운영이 가시화 될 것이다.

우리시는 영어도시 조성을 위해 영어사용 환경 조성, 영어 공교육 혁신, 시민 영어역량 제고, 공공부문 혁신 및 영어도시 조성 선도 등 4개 분야에서 86개 사업을 추진한다. 크게 시민들의 영어사용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과 학생, 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사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인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도 포함된다. 🐦



The 1st Incheon English Festival 9월 14일~16일 가천의과학대학교			
Smile with English			
인천이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어가 상용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붐을 조성하기 위한 제1회 인천영어페스티벌이 열린다. 인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축제를 통해 '영어교육 체험의 메카 인천'을 구현하고 국제도시, 교육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축제는 영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제로 하는 '교육축제'와 온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 그리고 인천의 다양한 도시구성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축제'가 어우러진다. 그렇다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축제가 아니다. 'Smile with English'라는 슬로건처럼, 기존의 딱딱한 체험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함께 보고, 느끼고, 즐기고, 배워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말만 들어도 어려운 영어, 보기만 해도 겁나는 외국인을 이제 따뜻한 웃음으로 극복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잘 차려진 뷔페 식단처럼 풍성하다. Experience, Education, Fun English, Exhibition, Life In English 등 5개의 소주제에 따라 3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영어경시대회를 비롯한 초청 강연회, 학술심포지움, 영어토론논술대회, 골든벨, 거리 이벤트, 영어마을 체험, 세계도시 체험 등이다. 이밖에도 영어교육관련박람회, 초청가수 공연, 무대공연 등이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일자/시간	9월 14일(금)	9월 15일(토)	9월 16일(일)
10:00	영어토론논술대회, 학술세미나(심포지움)		전국학생영어경시대회
11:00	아리랑 국제방송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Writing Contest
12:00			좋은 영어글쓰기 특강
13:00		전국 어린이 스피치 콘테스트	
14:00	개막식(Open Ceremony)		주부 영어콘테스트
15:00	공무원 영어경진대회 We are the world(동부교육청영어축제)		
16:00			영어골든벨
17:00		초청강연회	
18:00		IYF세계문화체험공연	IYF세계문화체험공연
19:00	IYF세계문화체험공연	Pop Song Night	폐막식(공연)
상설행사	영어교육박람회, 영어체험프로그램(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영어마을), 세계문화체험, 영국문화체험, 스트리트 이벤트		





## 아시아 최초, 중동문화원 개원



아시아 최초의 중동문화원인 한국중동·이슬람문화교류원(Korean Centre for Middle Eastern & Islamic Culture)이 오는 10월 인천에 문을 연다. 이는 작년 10월 안상수 시장과 한덕규 한국·중동협회 회장이 인천에 중동문화원을 세우기로 협약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중동·이슬람문화교류원은 남구 구월동에 중동·이슬람문화 전시장, 비즈니스 지원센터, 국제교류실 등을 갖추고 1천800여㎡ 규모로 세워지며, 10월 중에 공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원식에는 아므르 무사(Amr Moussa) 아랍연맹사무총장을 비롯해 중동이슬람지역의 왕자, 장관, 유력 언론인 등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중동·이슬람문화교류원 개원을 계기로 한국과 중동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인천에 중동자본을 적극 유

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교류원은 2012년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로 이전하게 된다.

문의 | 인천국제교류센터 ☎ 441-8163

### 김포시와 현안사업 양해각서 체결

우리시와 경기도 김포시가 두 도시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상수 시장과 강경구 김포시장은 지난 8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두 도시의 현안사업해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검단·김포인접지역 국가산업단지 공동지정 신청,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해안도로~초지대교 직선연결, 나진포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우리시의 현안사업 4개가 포함됐다. 또 2014 인천아시아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두 도시는 이 같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개발계획과 ☎ 440-3413



### 명품도시, 명품거리 조성

2009년 우리시에 테마가 있는 명품거리가 조성된다. 우리시는 강화와 용진을 제외한 8개 구를 각 구의 특성에 맞는 거리로 조성하는 ‘1구1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09년까지 각 구에 도로, 보도블럭, 안내판, 가로수 등을 설치해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단위 경관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도시경관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에 시 도시경관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 440-3351

### 송도 쿨타운 조성

송도 경제자유구역 5·7공구에 IT미래도시 쿨타운(Cool Town)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7월 27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관에서 열린 HP 기술이전 공개 세미나에서 쿨타운 조성 계획을 밝혔다. 세계적인 정보기술 업체인 HP는 오는 2009년까지 HP본사의 유비쿼터스 연구개발(R&D) 센터를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 쿨타운을 조성한다. HP는 전체 건설비 1조원 가운데 1천500억원을 투입하며, 나머지 건설비는 국내 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U-city 홍보체험관 청사진 공개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에 조성하는 U-city 홍보체험관의 윤곽이 잡혔다. 우리시는 지난 8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U-city 홍보체험관에 대한 중간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U-city 홍보체험관은 U-mall, U 교통시스템, U-home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 서며,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주행사장으로 쓰이게 된다. 우리시는 2009년 6월까지 900억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 내 3만1천670㎡ 부지에 U-city를 건설할 계획으로, 민관 합동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이창구 행정부시장 주요사업 시찰

이창구 행정부시장이 우리시의 주요사업현장을 찾아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이 부시장은 지난 8월 1일 동인천역, 송의운동장, 가정오거리 등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개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찰이틀째인 8월 2일에는 경인운하(굴포천방수로)와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 440-2134



### 2009 문화의 달 행사 인천 개최

‘2009 문화의 달’ 행사가 2009년 10월 우리시에서 열린다. 문화관광부는 대전, 울산, 부천 등 10개 지자체로부터 ‘2009 문화의 달’ 유치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우리시를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는 관계전문가 등 선정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우리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더불어 문화예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홍보효과를 높일 것을 앞세워 ‘2009 문화의 달’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2009 문화의 달’ 행사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인천시내 전역에서 열리며, 전야제와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문화체험 및 공연, 중국의 날 행사, 인천연고 미술 작가전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4013

### 네덜란드 대사 일행 방문



네덜란드 한스 하인즈브르크(Hans Heinsbroek) 주한 대사 일행이 지난 8월 8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안상수 시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안 시장은 네덜란드 대사 일행에게 경제자유구역사업과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 인천아시아게임을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네덜란드가 경제개발에 협력하고 투자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문단은 시청에 이어 인천항만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방문해 우리시의 발전상을 확인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 국내 최초, 외국인근로자 병동 개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전문병동이 국내 최초로 인천에 문을 열었다. 지난 8월 14일 부평구 인천중앙병원에서 김성중 노동부 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병동 개소식이 있었다. 병동에는 병실 58개와 침상 730여개, 환자들이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용진료센터가 마련됐다. 또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의료인 10여명이 배치돼 환자의 편의를 더한다.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병동은 앞으로 전국 9개 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33

### 내년부터 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

우리시가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재활승마서비스를 제공한다. 승마서비스는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무료이며 저소득자에게는 실비로 제공된다. 승마서비스와 함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특수교사 등도 함께 지원된다. 우리시는 현재 재활승마사업 수탁기관인 노들담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승마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65

### 인천시, 베트남 람동성 우호협력 체결



우리시가 베트남 람동성(Lam Dong)과 우호도시결연 의향서를 체결했다. 후인 득 화(Huynh Duc Hoa) 람동성 주석과 보 반 못(Vo Van Mot) 동나이성 주석 일행은 지난 7월 27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안상수 시장을 예방하고 우리시와 람동성간의 우호도시결연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날 안 시장은 우리시가 우수한 기술과 인력, 자본을 바탕으로 람동성, 동나이성을 비롯한 베트남 전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

부했다. 이에 후인 득 화 주석은 베트남 남부지역의 개발사업에 인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베트남 방문단은 의향서 체결 후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대교건설현장, 홍보관 등을 방문해 우리시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33



### 인도네시아 반튼주와 자매결연 MOU

인도네시아 반튼주의 톨무지(H. Turmu-dzi) 투자청장 일행이 지난 8월 6일 인천 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톨무지 투자청장 일행은 이창구 행정부시장과 접견하고 주지사 친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기술, 인력, 산업, 무역 등 두 도시간의 투자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창구 행정부시장은 우리시의 산업이 자카르타, 반튼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진출하고, 두 도시가 인도네시아 경제자유구역협력개발, 건설사업 및 물류 산업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방문단은 시청에 이어 인천항만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둘러보며 우리시의 개발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2

### 악취 없는 인천 선언

우리시가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 악취 제로화를 선언했다. 우리시는 시내 악취 관리지역의 대기배출 시설에 101여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악취를 없앨 방침이다. 인천시내 악취관리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인천서부지방 산업단지, 석남·원창동 공업지역, 백석·오류동 일대 등이다. 시는 2014년까지 악취를 없애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벌인 뒤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 440-3525

### 계양산에 국내 최대 생태통로 조성

계양산에 국내에서 가장 큰 생태통로가 들어선다.

장매이고개 생태통로는 계양산과 철마산을 연결하는 길이 80m 폭 100m의 아치형 구조물로 계산동과 연희동을 잇는 왕복 8차선의 경명로 위에 12m 높이로 세워진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생태통로 바닥에는 2m 두께로 흙을 덮은 뒤 풀과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어 동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데는 국비와 시비 148억원이 투입되며 다음달 공사를 시작해 2009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생태통로가 완공되면 도시개발로 단절된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복원해 생물종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 440-3532

### 송도 국제업무단지 명물거리 조성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특색있는 명물거리가 조성된다.

우리시는 지난 8월 7일 안상수 시장의 주재로 국제업무단지 관련회의를 열고, 개발사업시행사인 NSIC와 1공구 근린생활시설용지와 3공구 중심상업용지의 개발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인 NSIC는 회의를 통해 3공구에 대규모 쇼핑공간인 카스바 스트리트를, 1공구에 수로를 이용한 캐널 스트리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색거리를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리는 2009년 7월까지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대한민국 어린이로봇캠프 개최

대한민국 어린이로봇캠프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인천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초등학교생 530여명이 참가했으며, 관절형 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로봇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로봇퀴즈왕 선발대회, 로봇영화 관람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했다. 한편 캠프 진행과정은 EBS를 통해 전국에 방영됐으며, 캠프 참가자들 중 선발된 우수 학생에게는 EBS 로봇파워 100회 특집에 참가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동안 우리시는 청소년창작로봇교실과 로봇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로봇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써왔다.

문의 | 시 과학기술과 ☎ 440-3432

### NEATT 입주식 및 안전지원제 개최



지난 8월 6일 송도국제업무단지에서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의 첫 기둥 상량을 기념하는 입주식 및 안전지원제가 있었다. 이번 입주식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오태석 차장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주도하는 게일인터내셔널의 스탠 게일(Stanley C. Gale) 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철골 기둥을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을 기원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건설 협약식



장관,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각계인사가 참석했다.

협약식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는 2008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3년 1단계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총 3천423억원이 투입되며 전체 예산 중 정부가 2천362억원(69%), 공항공사가 856억원(25%), 우리시가 205억원(6%)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 440-3874

### ‘2009 강의 날’ 인천 개최

제8회 ‘2009년 강의 날’ 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린다.

우리시는 하천복원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높이 사 ‘2009년 강의 날’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시는 강의 날 대회 유치를 계기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 하천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강의 날 대회를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인천환경기술전, 하천환경학술심포지엄, 하천문화제 등 각종 환경 프로그램과 연계해 하천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문의 | 시 물관리과 ☎ 440-3055

### 송도 LNG기지에 스포츠타운

송도 LNG 생산기지에 대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된다.

우리시는 지난 8월 14일 송도 LNG생산기지 스포츠타운운영역보고회를 열고 내년 말까지 LNG생산기지 3지구 약 9만8천879.5㎡ 면적에 축구장과 야구장, 풋살경기장 등을 갖춘 종합 스포츠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모든 체육시설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프로구단의 경기 등을 대비해 국제규격에 맞춰 건설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에 대한 건설 협약식이 체결돼 자기부상열차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시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8월 9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 내 하얏트호텔에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건설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상수 시장, 이용섭 건교부

### 2010년, 송도에 연세대 캠퍼스 건립

2010년 3월 연세대 캠퍼스가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지난 8월 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이 의결돼 송도 글로벌 캠퍼스 건립이 확정됐다.

이번에 승인된 구역은 송도지구 내 142만4천494㎡로, 연세대는 올 연말 우리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공사를 시작한다. 연세대는 대학 캠퍼스 61만5천여㎡, 주거 및 상업시설 26만4천여㎡, 공공용지 4만6천여㎡에 녹지, 공원, 주상복합 등을 조성해 송도 캠퍼스를 대규모 국제화 대학타운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네팔 노동부 장관일행 방문

네팔 노동부장관 라메쉬 렉헝(Hon. Mr. Remesh Lekha) 일행이 지난 7월 26일 인천시청을 방문했다.

네팔 노동부장관 일행의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노동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방문단은 안상수 시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으며,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을 시찰하며 우리시의 발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2

###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시행

우리시는 오는 10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우대카드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며 막내가 2000년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 가정으로, 카드는 발급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에서 제작·발송한다. 1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금융기관에 접수하면 검토를 거쳐 우대카드를 제작해 준다. 우대카드를 사용하면 지역 내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료 감면·면제, 공연·전시 입장료 할인·면제, 금융기관 대출금리·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43









# 인천 땅을 밟고 마음에 새긴, 7일

제7회 인천바로알기종주대회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우리시의 청소년들은 종주대회를 통해 우리가 사는 곳을 돌아보며 인천을 배우고, 명품도시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새기며 희망찬 미래를 약속했다.

사진 · 인천바로알기종주단

지난 7월 30일 시청 앞 광장에 힘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우리시와 경인일보가 주최하고 인천바로알기종주단이 주관하는 제7회 인천바로알기종주대회의 발대식이 열린 것이다.

2001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인천바로알기종주대회는 인천의 학생을 비롯해 시민 150여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홍일표 정무부시장, 박창규 인천시의회 의장, 이일희 공보관,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 등이 참석해 인천바로알기 여정에 나서는 종주단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인천바로알기종주대회를 떠나기 전 아이들은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1박을 하며 의지를 다잡았다. 부모와 함께 종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인천 땅을 밟는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의 역사를 되짚고 문화유산, 갯벌과 철새 등 인천의 자연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종주 기간 내내 부평, 소래 등 우리가 사는 고장을 살살이 밟고, 계양산, 고려산 등 이 땅의 푸르른 자연을 느끼고 호흡했다. 인천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눈을 반짝이며 송도국제도시홍보관, 대우자동차공장, 삼산농산물도매



시장, 해양생태공원 등을 견학하기도 했다. 6일차인 8월 3일에는 조별장기자랑을 열고 초청공연을 보며 고된 일정에 쌓인 피곤을 풀었다. 종주 마지막 날인 8월 4일에는 용유해변을 시작으로 월미도를 건너 갑문을 견학하며 인천을 보고, 느끼고,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열띤 격려의 박수를 받으며 종주 마지막 도착지인 시청에 다다랐다.

아이들은 인천 땅을 살살이 밟으며 부은 발을 어루만지고 지친 몸을 다독여야 했지만, 그 누구도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을 정도로 의젓하고 씩씩했다. 종주를 성공리에 마친 아이들의 이러한 의지는 명품도시 인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

### 종주기 'Impossible is Nothing!'



시청이 가까워지고 6박7일간의 목표가 눈앞에 있을 때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동안 나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웠기에 이룰 수 없었던 수많은 목표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종주단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되새기며 '무소의 뿔처럼' 전진해 가겠다. (인천고 김봉헌)

6박 7일 동안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웠다. 그리고 인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내년엔 열리는 종주대회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내 마음은 언제나 인천을 걷고 항상 인천을 외칠 것이다. "종주단

화이팅! 인천은 기나긴 역사와 유적을 가진 우리 고장, 우리 집이다!" (신송중 안세환)

시청에 들어갈 때 부모님들의 박수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동이었다. 이번 종주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이기는 힘을 기르고,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기에 내년에도 다시 참가할 생각이다. (송도고 최덕진)

처음에는 낯선 친구들이 어색하기도 하고 '집에 언제가나' 하는 생각만 했다. 하지만 종주가 끝난 지금은 오히려 일정이 짧아 아쉬운 생각이 들 정도다. 내년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올 것이다. "모두들 수고했다. 우리 파이팅하자!" (원천중 조윤)

# 노인을 보는 눈

글 · 신원철 인천시노인취업정보센터 회장



사람의 눈은 마음을 충실하게 따라가는가 보다. 과거 민선단체장을 할 때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이익에 눈이 가더니, 노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지금은 관심이 온통 노인에게 머물렀다. 노인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 · 늙은이' 라고 되어있다. '늙다'는 말은 '나이가 중년을 지나 기력이 약해지다' 이니 노인이란 나이를 많이 먹어 기력이 약해진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나이는 많지만 기력이 왕성한 사람은 노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주위를 보면 나이를 잊고 넘치는 기력으로 열심히 사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눈동자는 검게 일렁이고 젊은이 서너 명쯤은 거뜬히 상대할 만큼 강단도 있다. 머리는 하얗게 세었지만 추하기보다는 세월의 경륜이 배어있고, 손마디는 마른 싸리나무가 아니라 통통히 살이 올라 굳은 박달나무 같다.

걷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이 곧고 웬만한 시련은 웃으며 건디는 호탕함도 엿보인다. 실로 노인 예찬이다. 노인들은 쉽게 성내지 않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세상을 관조하며, 아랫사람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준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체현한 담담함이 범상치 않다. 미래는 현재와 이어져 있고 현재는 과거와 이어져 있는 것이다. 선인들의 지혜가 없이는 오늘의 발전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도저히 노인에게 걸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의도적인 회피이다. 그들이 부모를 낳았고 그 부모들이 자신을 낳은 것이니 진정으로 우러러 받들어야 하는데 말이다. 선거철이 다가온다. 각 후보들은 마치 가진 자의 선물인양 다양한 노인우대 정책을 펴 놓을 것이다. 노인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받기만하는 수혜자가 아니다. 누구보다 당당할 권리가 있다. 험벗고 굶주렸던 시절, 저들이 자신의 욕심을 뒤로하고 자식에게 헌신하지 않았던들 오늘의 나도, 이 영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은 자선이 아니라, 노인들의 희생과 수고에 미력하게나마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노인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나이를 먹더라도 기력이 있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다. 마을 어귀에 서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에 마을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가정이든, 마을이든, 나라이든 노인은 그 자체로 존경 받아야 한다. 🐦

### 내 가슴에 새긴 한구절

내가 평생 배운 것 중에서 오직 충서(忠愼)의 두자를 얻었는데 이는 평생을 사용해도 닳아 없어지는 법이 없다.  
-송명신언행록 범순인(範純仁)편 중에서

충(忠)은 충직함이며 서(愼)는 인정과 헤아려 동정하는 것이다. 논어(論語)에도 공자지도충서기의(公子之道忠愼己矣)라 하여 공자의 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서라고 했다. 자기 직분에 성실히 임하는 것, 진실한 것, 충실한 것이 도이며, 동정할 것을 동정하는 것이 곧 도인 것이다. 또 도는 머리 수(首)와 책머리변(丿)이 합한 것이니 머리로 공부를 하면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 고독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머물리라

— 손설향의 ‘부두’

글 · 김학균 시인

“시를 쓴다는 것은 인간의 혈빛은 영혼의 기구(祈求)를 위한 작업으로 시인의 업은 최대 열락(悅樂)이다.” 이 말은 시집 ‘부두의 편력’ 후기에 쓴 시인의 말이다. 그래서 손설향 시인은 시력(詩歷) 40년을 시에 미쳐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누구보다 심상이 두껍다는 말이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중략) 강물은 출렁출렁 목이 맵니다.” 거나하게 취하면 어김없이 대중가요 ‘두만강’을 즐겨 불렀던 시인은 시쳇말로 ‘고음불가’ ‘목소리 비호감’이었지만 속내는 누구보다 따뜻한 선배로 후배 문인들이 가장 많이 따랐다. 어느 문인보다도 선배 모시기를 깎듯이 했으며 이쪽저쪽을 넘나들며 말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손 시인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취정(醉情)의 세계에서 시정(詩情)의 세계를 넘나들며 살았다. 남에게 욕먹는 일은 하지도 않았고 싫은 소리 할 줄도 몰랐던 사람으로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하얀 눈(雪) 같이 깨끗하고 푸근한 시인이었다.

차일피일 미뤘던 시인의 처녀시집 ‘부

두의 편력’ (연희출판사, 1977년 4월 刊)은 참으로 어렵게 세상의 빛을 본 시집으로 편편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방황의 원초적 사유가 잘 깃들여 있으며 인천 부두의 모습을 잘 간직한 시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호는 죽재, 1930년 서울 냉천동 출생으로 동국대학을 수학, 동란의 어수선했던 사그러진 1953년에 인천으로 이주해 25세에 외항선에서 하역되는 물건을 검수하는 직업으로 생활을 꾸리며 창작에 입문했다. 죽재는 문인은 물론 타 장르의 예술인과 교우하며 술을 사랑했던 현대판 시객으로 인천신문과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며 많은 일화를 남겼으나 현실사회의 괴리감을 허물지 못했다. 결국 인천상공회의소와 경기교육신문사를 끝으로 시주(詩酒)에 젖는 생활의 연속으로 이어졌으나 가정만큼은 따뜻하게 가꾸어 또 다른 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게 마련이어서 죽재를 최병구 시인의 전철을 밟으며 식술을 돌보지 않고 방



황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시인의 자손들은 목사로, 간호사로 열심히 살며 아버지만한 사람 또 있을까하고 회상한다. 물론 시인에게 술이 전부가 아니고 전유물 또한 아님을 왜 모를까. 가정 또한 소중하게 여긴 설향 시인에게는 잘못 오도된 풍문이 많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문인협회 사무국장을 여러번 맡아 임무를 다하고 부지부장을 역임하며 남다른 열정을 보인 시인은 아마도 세상사와 타협할 줄 모르는 성품이었다. 심장병을 이기지 못하고 투병생활 3년 여 만에 세상을 버렸지만 1999년 5월 두 번째 시집을 상재, 가슴에 묻은 응어리를 다 털어버리지 않았나 싶다.

‘한 잎새의 울음’ (경기교육사간)의 제목이 그렇듯 한을 많이 품은 시인 손설향은 눈내린 고향을 찾아 한손에 술잔을 들고 그렇게 갔는가.

술한 문인, 예술인들과 정에 어린 이야기를 못다 풀어놓은 손대가리(손시인의 별칭) 시인은 6년 전 4월16일 71세의 일기로 경기도 용미리 추모의 집에 거(居)하고 있다.

“작은 아버지, 아버지 빼는 왜 황토색 이죠?” 장례를 치르던 날, 화장장 창으로 시인의 모습을 본 아들 지민의 말.

“술 때문이다. 술을 많이 드셔서...”

정말 그랬다. 머리 쪽이 붉었다. 황토색, 붉지만 흙은 흙이다. 흙으로 돌아 간 시인의 모습이 아닌 생전의 모습이 보고 싶다. 그림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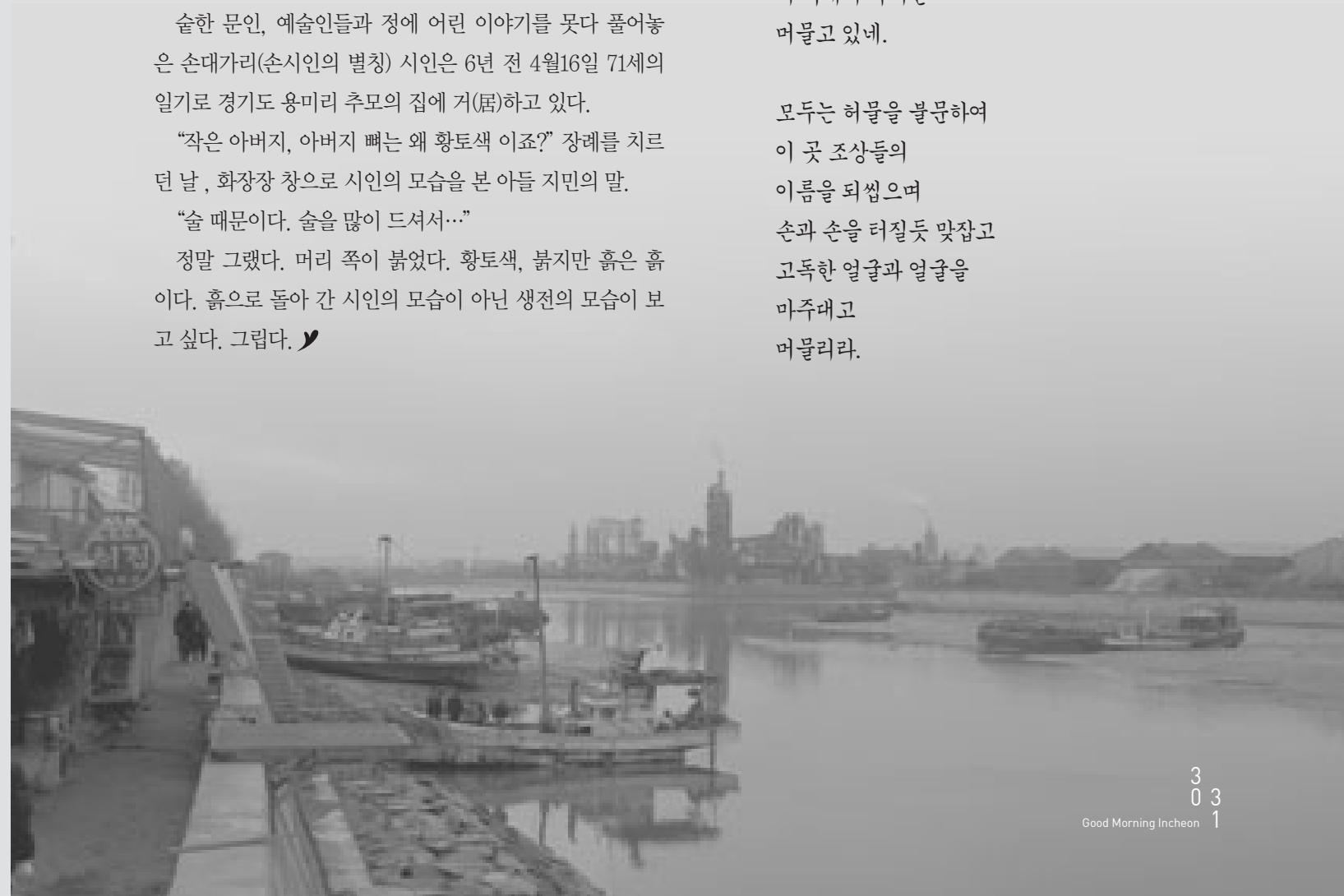
부두 (9)

- 이곳에 머물리 -

항시 해풍이 감도는 이곳에  
누구보다 따사한 사랑을 나누며  
기쁨과 슬픈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까.

뱃고동이 울고  
종이 우는  
항구는 실증이 난  
세월을 임종하듯  
목타게 흐르는  
이 속에서 우리는  
머물고 있네.

모두는 허물을 불문하여  
이 곳 조상들의  
이름을 되씹으며  
손과 손을 터질듯 맞잡고  
고독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머물리라.





# 지중해에 핀 꽃, 텔아비브

텔아비브(Tel Aviv)는 최첨단산업을 비롯해 금융, 문화, 관광 이 발달한 이스라엘 제 1의 도시다. 우리시와는 2000년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그 후로 기술산업을 육성하고 교류하는 등 협력 관계를 돈독히 이어오고 있다. 두 도시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춰지길 바란다.

자료제공 · 시 국제협력관실

텔아비브(Tel Aviv)는 이스라엘 중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도시다. 17세기 말경부터 항구도시로 발전했으며,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는 최첨단산업도시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텔아비브는 하이테크(Hi-Tech)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산업도시로, 전자, 금속, 항공우주, 컴퓨터산업, 귀금속(다이아몬드)가공, 생명공학, 과학·영농분야 등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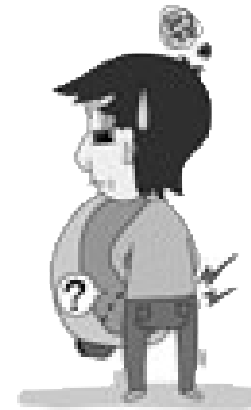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시가지가 라마트간(Ramat Gan), 홀론(Holon) 등 위성도시와 이어져 있어 광대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리다공항, 텔아비브항, 아파항이 자리하고 있어 각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텔아비브대학, 박물관, 미술관 등 교육·문화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온난한 기후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휴양·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했다.

우리시와 텔아비브는 2000년 5월 14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1997년 로니 밀로(Roni Milo) 텔아비브 시장이 인천에 방문해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제의했으며, 1998년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하면서 관계를 진전시켰다. 그 후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다 이창호 주이스라엘대사와 아라지 아리에(Arie Arazi) 주한대사의 주선으로 2000년 형제의 연을 맺었다. 텔아비브가 아시아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우리시가 처음이다. 텔아비브가 최첨단산업이 집중된 이스라엘 최고의 도시임을 고려할 때, 텔아비브와 우리시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하겠다. 두 도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후 2001년 신임 주한이스라엘 대사가 인천을 방문하고, 2005년 텔아비브 의회의장이, 2006년에는 텔아비브 대표가 방인하는 등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금융·상업·문화·관광 등 이스라엘 산업의 50%가 집중돼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도시 텔아비브, 지중해의 대표도시인 텔아비브와 동북아 중심도시인 우리시가 두 손을 잡았으니 앞날이 밝다. 앞으로도 두 도시의 협력관계가 공고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



# 따끔 따끔, 소변 보기 무서워요~



요즘 전립선비대증을 비롯한 전립선 질환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인지 배뇨가 불편하면 나이 때문이려니 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Q 전립선은 여자에게도 있나요?

ATV, 라디오 등에서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는, 가끔 나이드신 여성분들이 소변보는 것이 불편한데 자신도 전립선비대증이 아니냐며 병원에 찾아오곤 한다.

전립선이란 여자에게는 없고 남자에게만 있는 몸의 일부인데 방광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누워 있지 않고 세워져 있으며 요도를 감싸고 있다. 몸 밖에서는 만져지지 않는 몸 속에 있는 기관이다. 전립선의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담당한다. 즉 정액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곳이다.

## Q 전립선은 어떤 병의 이름 인가요?

AT전립선에는 크게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전립선염 등의 병이 생길 수 있는데 30, 40대에는 전립선염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고 50대 이후에는 전립선비대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전립선염에 의한 배뇨 증상은 소변을 보는데 있어 저장, 자극증상(빈뇨, 배뇨통 등)이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막는 증상보다 주된 증상을 보이고 있고 전립선비대증은 소변을 볼 때 자극증상보다는 막는 증상(세뇨, 배뇨 후 점적) 때문에 배뇨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Q 오줌발이 약해지면서 발기도 안 되는데 ...

AT중년 이후에 배뇨가 힘들어지면서 발기도 시원하지 않고 성욕도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오해를 하곤 한다. 소변은 방광에서 모였다가 방광이 소변을 짜서 요도로 밀어내고 소변은 전립선이 감싸고 있는 요도(전립선 요도)를 통과해서 비로소 몸 밖으로 나온다. 그런데 방

광의 짜주는 능력이 약해지고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면 소변의 줄기가 약해지는 것이다. 전립선은 젊은 나이에는 거의 커지지 않다가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 점차 커지고 전립선 요도를 압박하여 전립선 요도 부위가 좁아져 오줌발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발기 및 성욕에 대해서는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대사성 질환 및 남성호르몬, 갱년기 증상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발기부전 및 성욕저하 등이 하부요로증상에 의한 스트레스의 역할도 있을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 Q 전립선비대증이 심해지면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나요?

AT전립선비대증 진단 후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 전립선비대증이 심해지면 암으로 변하는가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별개의 병으로 비대증이 심해진다고 해서 암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물론 암 덩어리가 전립선을 크게해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들어 소변이 나가는 길을 막기도 하지만 혈액검사, 항문수지검사, 초음파 등을 통해 암을 진단할 수 있다.

## Q 전립선비대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AT전립선비대증의 주된 원인은 노화와 남성 호르몬이며 이외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예방법은 식이조절이다. 즉,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전립선비대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탄수화물, 생선 등의 섭취를 늘리고 변비를 막는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과일 등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비만과 내장지방층의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외에 과음을 피하고 특히 감기약 복용 시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비뇨기과를 찾는 습관을 들여 지속적으로 배뇨관리를 하고 전립선비대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글 · 박태희  
인천광역시의료원 비뇨기과 과장



# 상속포기를 할까, 한정승인을 할까



**Q** 나부도는 가여운과의 사이에 아들 나희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 나희망은 결혼을 하였고, 나희망의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아들 내외와 행복하게 살던 나부도의 가족은 어느날 나부도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빚쟁이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부도는 사업을 재기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하던 중 늦은 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여운이나 나희망에게는 나부도의 빚을 갚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나부도가 사망하면서 가여운과 나희망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나부도 명의의 땅, 집,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지만, 나부도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가여운과 나희망이 나부도의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상속받는 시점이 뒤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여운과 나희망에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빚이 아님에도, 나부도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거액의 빚을 상속받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가여운, 나희망과 같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빚)를 면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나부도가 남긴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을 경우, 가여운과 나희망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나부도의 사망일'이 될 것입니다)로부터 3개월 내에

나부도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해 두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여운이나 나희망은 나부도가 진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민법은 태아에게도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여운과 나희망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태아가 상속인이 되어 나부도의 빚을 상속받게 되므로 나희망은 태아의 친권자로서 태아를 위한 별도의 상속포기신고도 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여운이나 나희망은 나부도가 남겨놓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나부도의 빚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부도와 나희망이 한정승인을 해 두면, 일단 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신고를 한 것이므로 차순위 상속인인 태아에게 나부도의 빚이 상속되지는 않으며, 태아를 위해서 별도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통상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액의 빚을 상속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글 · 박소영 변호사 (로펌 로시스 ☎ 861-5511)

## 오이팩

뜨거운 태양 아래 서구 물썰매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영과 물썰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알차고 즐거운 나들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정신없이 노느라 햇빛을 몽땅 받아들여 얼굴이 빨간 사과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기 위해 팩을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뜯어먹고 노느라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임현범 | 계양구 병방동



## 김치~찰칵



## 열 모자 무서워요~

파마를 하러 간 24개월 대성이! 평소에는 정말 얌전한데 열모자는 많이 무서웠나봐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대성아~! 멋진 남자가 되려면 이 정도의 아픔은 참아야해!

김재환 | 남구 문학동

## 신나는 물총놀이

왕산해수욕장에 가족들과 갔습니다. 오랜만에 물을 만나서 인지 아주 잘 놀더군요. 가깝게 가족들이랑 놀기 너무 좋아요. 늘 직장 때문에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신랑이 미안했는지 하루 내 맘껏 봉사했습니다.

김진필 | 부평구 삼산동



## 함허동천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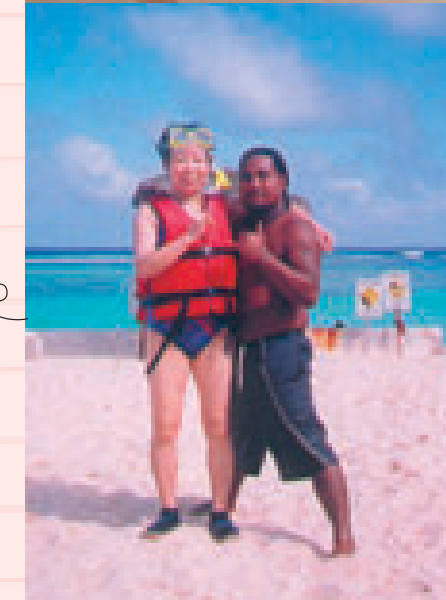
강화도에 있는 함허동천입니다. 물도 깨끗하고 놀기에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 놀죠?

방순주 | 부평구 산곡2동

## 어머니의 청춘

10여년 전에 어머니 회갑기념으로 팜을 다녀왔습니다. 원주민과 함께 멋진 포즈를 취하셨던 어머니 사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께서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두영 | 부평구 부평5동



## 겁많은 우리 아들

휴가 기간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른 허리 정도 되는 깊이로 가니 같이 있던 아들이 발이 닿지 않는다고 무서워 하며 매달리더군요. 지금은 저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이지만 이 사진 속에 아들은 겁 많고 작기만한 아들이네요.

구순자 | 서구 불로동

##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자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 청량한 바람 타고 역사산책 두둥실

청량산(淸涼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시사철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는 인천의 명산이다. 그리 높지 않은 해발 172m의 산이지만 정상에 서면 영종도는 물론 영흥도, 덕적도까지 눈에 들어 올 만큼 조망이 좋다. 굳이 산에 오르지 않아도 옥련동 방면 남쪽 기슭에 가면 인천 역사의 편린들을 찌맛춰 볼 수 있는 박물관과 기념관 등이 있어 반나절 나들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옛사람의 체온을 느끼다

## 인천시립박물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덕분에 시립박물관은 무겁고 칙칙했던 예전의 ‘박제된’ 모습을 말끔히 떨쳐버렸다. 밀린 방학숙제를 베퉼치기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들의 반짝 방문으로 박물관 안은 활기로 가득 차있다. 어쨌든 아이들은 오늘, 수만 년 전의 선사시대부터 격동의 20세기까지 우리지역에서 살아온 옛사람들 삶의 흔적을 더듬어 볼 것이고 그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일상과 숨결 그리고 애환까지 만나게 될 것이다.

역사실 I에서는 계양구 동양동에서 발굴된 토광묘를 비롯해 돌도끼, 돌검 등 아득한 시대의 유물을 보며 우리지역에서 살아온 옛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숙제 자료로 첨부하기위해 그 유물들을 핸드폰과 디카로 찍는다. 세월이 흘러 그들 손에 쥐어진 그 도구들이 후세인들의 눈에 신기한 유물로 비춰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역사실 II에 들어서면 사대부 집안의 민속품, 선비의 그림과 책 등을 통해 조선시대 생활상과 선비의 기품 등을 느낄 수 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인천의 옛 변화가였던 금파가(金波街)를 재현시킨 코너가 나온다. 그곳을 몇 발짝 걸으면 관람객은 타임머신 타고 100년 전 세상으로 훌쩍 가버린다.

전시실 외에도 박물관에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초대 박물관장 이경성 선생의 호를 따서 이름 붙인 200석 규모의 복합공연장 석남홀과 탁본뜨기와 민화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체험교실 그리고 기념품

이나 도록 등을 판매하는 뮤지엄숍을 비롯해 카페, 도서관, 세미나실 등이 있다.

박물관 마당으로 나가보자. 야외전시장에는 지석묘와 철제범종 등이 전시돼 있으며 우현(又玄) 고유섭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인천 용리(현재의 중구 용동)에서 태어난 고유섭은 일찍이 우리의 미와 우리 미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미학을 바탕으로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가이다.

동상 앞은 우현마당이라고 칭해져 있다. 청량산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서는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이라는 작은 음악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어른은 400원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는 무료이다. 교통편은 6, 8, 16번 시내버스를 이용해 송도유원지에 내려 5분 정도 걸으면 된다. 인천지하철 동춘역에서 740번 순환버스를 타거나 동막역에서 8, 16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440-6127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1950년 9월15일에 수행한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는 상륙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풍전 등화의 위기에 빠진 한반도의 전세를 급반전시켜 조국을 구해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4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청량산 기슭에 세워졌다.

그곳에 가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것을 실감한



다.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을 전쟁 유품들과 무기들이 곳곳에 전시돼 있다. 제 1전시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관람객은 금세 전장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 유리관 안에 전시된 시커먼 기관총, 3.5인치 로켓포 등 전쟁터에서 불을 뿜었던 무기들이 여전히 살기를 품은 채 전시돼 있다.

언제나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곳은 국군복장과 인민군 복장을 한 마네킹 전시관. 피아를 구분하는 복장만 다를 뿐 다정한 형제처럼 보이는 마네킹 앞에 서니 '왜 우리는 서로 싸웠지?' 라는 물음이 들려온다.

제 2전시관에는 상륙작전의 전황이 모형으로 재현돼 있다. 시커먼 폭염, 함포사격의 굉음... 눈앞에 다시 쑥대밭이 된 그날의 인천 그림이 그려진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야외전시장은 기념관의 백미. 그곳에는 상륙작전 때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수륙양용장갑차와 세이버 전투기, 호크 유도탄 등 대형 장비들이 지금이라도 곧 발진할 태세로 전시돼 있다. 그것들이 향하고 있는 인천 앞바다는 이제 이데올로기 격전장이 아니라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 갈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등 인천의 상징들이 우뚝 솟아있는 희망의 장소이다. 그곳에 서면 잿더미 속에서 핀 한 떨기 장미의 모습이 교차된다.

▶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 교통편은 시립박물관 편 참고.  
문의 ☎ 832-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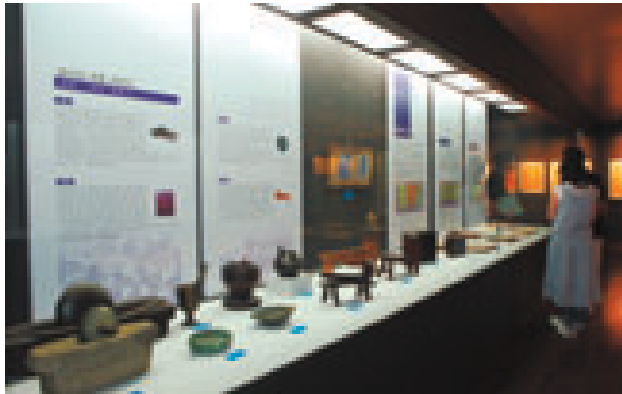
## 그날 인천의 모습은



9월 15일 오전 11시경, 팔미도 앞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연합군의 전투기가 인천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었다.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암호로 인천상륙작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 함정 260여척과 한국 해군 초계함 4척 그리고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보병사단, 그리고 국군해병 제 1연대 등 7만5천여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상륙하기 전에 인천시가지에 쏟아 부은 포탄만도 2천845발이었다. 월미도는 예닐곱번 뒤집어졌고 시내에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다. 상륙작전을 피해 교외로 피란 나온 시민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인천 앞바다에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는 연합군의 군함들을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워했다. 전투는 오후 내내 계속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울목동과 도원동 일대의 초가집들과 시가지 건물들의 타오르는 불길에 하늘이 온통 시뻘겋게 물들었다.

작전 개시 12시간 후에 유엔군 비행기는 인천 시내에 전단을 살포했다. "인민군 병사에게 알린다. 강력한 유엔군 부대가 상륙하여 전진 중이다...즉시 유엔군에게 항복하라, 맛있는 음식과 치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상륙부대는 거침없이 서울을 향해 진격했다.

## 동·서양 의술을 엮는다 가천박물관



얼마 전에 청량산 기슭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가천박물관이 이사왔다. 덕분에 청량산 기슭 역사가들이 동선에 무게감이 실렸다.

국내 의료사(史) 전문 사립박물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가천박물관은 일반 공립박물관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전시물이 많다. 1층 의학사료관에는 약탕기, 침통 등 조선시대 전통 한방기구와 개화기 이후 병원에서 쓰던 환자용 산소공급기와 수술도구, 의사면허증 등 서양 유물이 전시돼 있다.

보물로 지정된 의학서적도 볼 수 있다. 1399년 조선에 자생하는 약초를 집대성하기 위해 발간한 향약제집성방(보물 제1178호)과 1434년 중국의 한의서를 실정에 맞게 새로 편찬한 전문 의학서인 태산요록(보물 제1179호) 등 보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 13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 유일의

국보(제276호)인 초조본 유가사지론(初雕本 瑜伽師地論)이 눈에 뜨인다.

의학사료관을 나오면 건너편에 간행물 창간호실이 있다. 1908년에 창간된 '기호흥학회월보'를 비롯해 '신흥청년'(1924) '신조선'(1945) 등 근·현대에 발간된 잡지와 신문 창간호 9천1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한국기네스 북에 국내 최대 창간호실로 등록될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다.

2층에는 가천역사관과 기획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가천역사관에는 가천길재단의 설립역사와 이길여 이사장의 성장 과정이야기가 전시돼 있다. 기획전시관에서는 8월까지 차맷돌, 차화로 등 다구전(茶具展)이 전시되었고 9월부터는 잡지 창간호 특별전이 열린다.

▶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상륙작전기념관 뒷길로 오면 바로 박물관에 다다를 수 있다. 문의 ☎ 833-4747

## 천년 호흡을 느끼다 흥륜사

흥륜사(興輪寺)는 청량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이다. 도심에서 고작 몇 걸음 땀을 뺀인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백팔계단을 오르면 하늘과 가까워지면서 번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채워진다.

흥륜사의 역사는 6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우왕 2년 공민왕의 왕사인 나옹화상은 청량산의 맑디맑은 기운에 이끌려 이곳에 사찰을 창건했다. 그때 지어진 절의 이름이 청량사. 이는 청량산의 어원이 되기도 했다.

사찰 어디서든 아래를 굽어보면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심호흡 크게 하니 바다가 가슴으

### 깊어가는 산사(山寺)의 가을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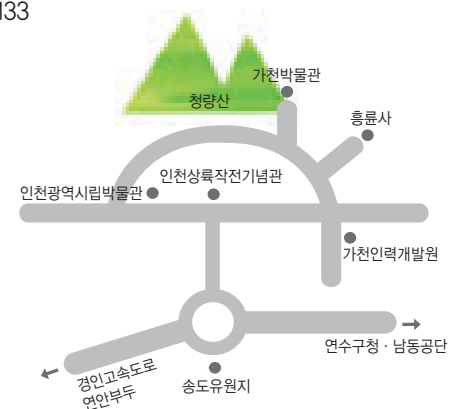
때를 따라 산은 곱게 물들기 시작한다. 밤하늘의 달과 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가을 산사에서 마음과 화음과 도량이 교감하는 향연이 펼쳐진다. 톡 트인 도량의 마당에서 펼쳐지는 흥륜사 산사음악회는 '천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 그 자체이다.

흥륜사는 10월13일 오후 7시 절 마당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기념' 산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는 MC 이상벽의 사회로 이승철, 장사익, 김영임, 빅마마 등이 음성 공양을 하며 B-boy팀이 청량산 산자락을 휘어감을 예정이다.

로 밀려 들어온다. 과연, 나옹스님이 감탄했을 법한 빼어난 풍취다. 이제는 나옹스님이 보지 못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를 잇는 인천대교의 모습에 또 다른 경탄이 쏟아진다.

기나긴 역사를 품고 있는 흥륜사는 귀중한 불교 유물을 간직하고 있다. 천삼백년 된 석가모니의 최초 설법을 기록한 패엽경(貝葉經)을 비롯해 통일신라의 관음보살상, 삼존불감, 탕화, 지방문화재 59호인 자치통감강목과 58호인 대장일람 등 국내 불교 유물과 인도 굽타시대 간다라 불상 등 동아시아 불교미술품 500여점 등이 그것이다. 흥륜사는 이런 귀중한 유물들을 전시할 박물관을 건립 하고 있다. 🍂

▶ 시내버스 6번을 이용해 송도유원지 앞이나 영락원 앞에서 내려서 10여분 정도 걸으면 된다. 또는 인천지하철 1호선 동춘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요금 2~3천원 정도면 흥륜사에 도착한다.  
문의 ☎ 832-1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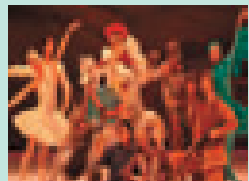


전자현악과 국악의 크로스오버 더 플라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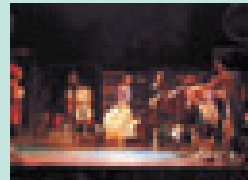
‘더 플라워’는 전자현악의 디지털 일렉사운드와 국악기인 가야금과 해금의 독특한 조화가 돋보이는 국악 크로스오버그룹이다. 수준 높은 음악적 역량에 빼어난 외모까지 겸비한 엔터테이너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이미 다양한 축제 행사와 기업행사에 0순위로 초대되어 그녀들만의 색깔로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일시** \_ 9월 15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싸리재홀  
**티켓** \_ 전석 6,000원  
**문의** \_ ☎ 760-3455~6 www.iecs.go.kr

동화발레 피터와 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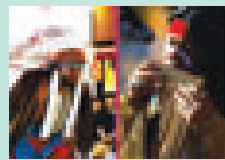
1부는 유명발레의 하이라이트를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발레하이라이트, 2부는 프로코피예프의 음악동화에 발레 안무를 한 ‘피터와 늑대’가 진행된다. 조승미발레단은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에 맞춘 발레로 자칫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익살맞고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화려한 발레 안무로 표현해 예술적 감각과 대중성의 균형미를 맞췄다.  
**일시** \_ 9월 5일(수), 6일(목)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티켓** \_ 전석 10,000원  
**문의** \_ 조승미 발레단 ☎ 02-3437-7385

년번벌 퍼포먼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일시** \_ 9월 22일(토) 오후 4시, 7시 / 23일(일) 오후 3시,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티켓** \_ 1층 R석 45,000원 2층 S석 35,000원  
**문의** \_ ☎ 창 라이프 ☎ 1566-6551

진정한 미국 춤과 음악 ‘인디안 스피릿’



인디안 스피릿은 인디오들의 정체성과 영혼을 고수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을 유지하는 그룹으로 모두 아메리칸 인디오들로 구성되어 있다. 춤처럼 대하기 어려운 인디안 토속신앙과 결합되어 있는 춤과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무대로 인디안 특유의 감성으로 소화해 낸 그들의 춤과 노래를 들으면 자연과 조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일시** \_ 9월 15일(토) 오후 2시  
**티켓** \_ 무료  
**장소** \_ 한중문화관 공연장  
**문의** \_ 한중문화관 760-786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월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i-신포니에타에서는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하반기 공연을 8월 26일(일)부터 격주로 시작한다. '영화 속에서 클래식 찾기', '아기야 사랑해', '동서양의 조화' 등 매회 색다른 주제로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2,3,4,5,6, 그리고 (여러 형태의 실내악과 만나기) 9월 2일(일) 오후 4시 /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자유 (관객과 하나 되는 모두가 만드는 음악회) 9월 16일(일) 오후 4시 /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영화 속에서 클래식 찾기 10월 7일(일) 오후 6시 / 인천시립박물관 우현마당				1 세계오페라페스티벌 비제 '카르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시 문화예술과 ☎ 440-4012 제21회 인천청소년음악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6시 / 초대 / 인천YMCA, 청소년재단 ☎ 016-330-7338 극단조이 ☎ 864-8052 이문세 '동창회 콘서트' 계양문화회관공연장 / 오후 7시 일반 6만6천원 / 하늘기획 ☎ 322-2121	2 세계오페라페스티벌 비제 '카르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4시 / 시 문화예술과 ☎ 440-4012 특산가족뮤지컬 '피터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5시 / 1만2천원, 8천원 이문세 '동창회 콘서트' 계양문화회관공연장 / 오후 7시 일반 6만6천원 / 하늘기획 ☎ 322-2121
3	4 뮤지컬 잉글리쉬 '춘향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싸리재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4시 30분 1만1천원, 7천원 ☎ 876-6289	5 동화발레 '피터와 늑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1만원 조승미발레단 ☎ 437-7385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계양문화회관공연장 / 오후 7시 무료 ☎ 551-6604	6 동화발레 '피터와 늑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 1만원 조승미발레단 ☎ 437-7385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계양문화회관공연장 / 오후 7시 무료 ☎ 551-6604	7 세계오페라페스티벌 베르디 '레트라비아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시 문화예술과 ☎ 440-4012 시립교향악단 목관 & 금관 앙상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 420-2781 금요일예술무대 (라틴 팝뮤직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8 세계오페라페스티벌 베르디 '레트라비아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시 문화예술과 ☎ 440-4012 영어뮤지컬 '춘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5시, 7시 30분 / 2만원 극단 서울 ☎ 02-747-0035 인천&아츠 인천시민음악회 서구 서곶공원 / 오후 7시 무료 ☎ 420-2027	9 세계오페라페스티벌 베르디 '레트라비아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4시 / 시 문화예술과 ☎ 440-4012 영어뮤지컬 '춘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2시, 5시 / 2만원 극단 서울 ☎ 02-747-0035
10	11 드라마틱 콘서트 '사랑과 우정사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7시 2만원, 1만5천원, 7천원 ☎ 435-1281	12 인천예고 무용과 졸업발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인천예고 ☎ 433-3145 드라마틱 콘서트 '사랑과 우정사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7시 / 2만원, 1만5천원, 7천원 ☎ 435-1281	13 건설협회와 함께하는 제2회 인천시민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 439-7272 드라마틱 콘서트 '사랑과 우정사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7시 / 2만원, 1만5천원, 7천원 ☎ 435-1281	14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79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7천원,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 420-2781 금요일예술무대 (벨리댄스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15 인천새마을금고인 (작은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4시 / ☎ 527-5894 환타지 오즈의 마법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30분 / 2만원 함박우음 ☎ 02-515-9227 어린이뮤지컬 '가부타코' (15일, 16일)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2만원	16 제7회 오페라 갈라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5천원 맨하탄유스오케스트라 ☎ 427-2537 환타지 오즈의 마법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30분 / 2만원 함박우음 ☎ 02-515-9227 인천-동강 우정의 모던로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 쿠키레코드 ☎ 203-8116
17 추석특집 서도소리 '배뱅이굿' 계양문화회관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 032-551-6604	18 인천여성문화회관 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 511-3141 관현악합주곡의 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싸리재홀 오후 7시 / 무료 ☎ 433-3175	19 국악관현악과 樂·歌·舞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음악악단 ☎ 02-766-5112 인천시립무용단 춤마당 흥마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 420-2788	20 연수구립여성합창단 제10회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 810-7086	21 창작인형극 '애기똥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 1만5천원 두부기획 ☎ 011-9138-2069 금요일예술무대 (가무시예 전통연희 한마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22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4시, 7시 / 4만5천원, 3만5천원 창라이프 ☎ 1566-6551 창작인형극 '애기똥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1만5천원 두부기획 ☎ 011-9138-2069	23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6시 4만5천원, 3만5천원 창라이프 ☎ 1566-6551
24	25	26	27	28 금요일예술무대 〈그룹사운드와 색소폰 앙상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29 토요일상설무대 COZ의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30 몽돌매울림마당 제18회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 010-3025-7729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 풀벌레 소리와 함께 풍류에 젖는다

주말 오후 가족과 함께 예술의 풍류를 즐겨보자. 인천시립무용단은 토요일상설무대에 우리 장단, 우리 춤사위로 풀어내는 넉넉한 주말을 준비했다. 궁중무용, 전통춤, 창작춤의 여러 유형의 춤들과 타악기 연주,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을 초청하여 지역의 문화유산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번 하반기 무대는 시립무용단 공연은 물론 지역의 각 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단체와 함께 하는 무대로 지역구민들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일시** \_ 8월~10월 (첫·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출연** \_ 인천시립무용단 전단원 및 객원출연진  
**티켓** \_ 무료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 공연내용

- 8월 18일 채구희, 독무, 장고춤, 산조, 부채춤  
연수구립관악단 초청무대
- 9월 1일 아박무, 독무, 향발무, 동래학춤, 소고춤  
남동구립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초청무대
- 9월 15일 교방무고, 독무, 진주교방굿거리춤, 흥춤, 나나니춤  
남구 한울소리 초청무대
- 10월 20일 진도북춤, 독무, 장검무, 기인무, 부채춤  
서구 태권도시범단 초청무대



이달의 展



## 2007 세라믹 페스티벌

‘2007 세라믹 페스티벌’은 현대 도예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서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도예작가 20명의 다양한 경향의 도예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부대행사로 9월 29일(토), 30일(일)에는 인천신세계백화점 중앙광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 체험마당이 개최된다.  
**기간** \_ 9월 21일(금)~10월 1일(월)  
**장소** \_ 인천신세계갤러리

9월 1일 ~ 6일 : 2007 인천아트페어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9월 4일 ~ 9일 : 제10회 인천예고 미술작품전시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  
 9월 4일 ~ 10일 : 정용국 한국화展 / 인천신세계갤러리  
 9월 7일 ~ 13일 : 강화도-자연의 보고(가톨릭사진가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전시실  
 9월 7일 ~ 13일 : 제7회 수형회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9월 7일 ~ 13일 : 제8회 김용수 사진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9월 11일 ~ 16일 : 제5회 인·예·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  
 9월 13일 ~ 18일 : 박성희 서양화展 / 인천신세계갤러리  
 9월 14일 ~ 20일 : ITC 2007 전시회(인천정보산업전흥)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9월 18일 ~ 11월 18일 : 중국회귀 소장품 특별전 / 한중문화관 우호도시홍보관  
 9월 21일 ~ 27일 : 김창빈 조각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9월 21일 ~ 27일 : 제11회 인천 판화가 협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9월 21일 ~ 27일 : 제15회 박승천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9월 21일 ~ 10월 1일 : 2007세라믹 페스티벌 / 인천신세계갤러리  
 9월 28일 ~ 10월 4일 : 인천미술초대작가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9월 28일 ~ 10월 4일 : 제14회 파스텔화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9월 28일 ~ 10월 4일 : 김용림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시드니엔 오페라하우스

송도엔 ‘인천아트센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2012년까지 공연장과 예술학교 등을 갖춘 복합문화단지 ‘인천아트센터(Incheon Art Center)’가 들어선다.

우리시는 지난 8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안상수 시장과 마에스트로 정명훈, 공연기획사 CMI 정명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아트센터 건립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송도국제도시 업무단지 내 11만2천㎡ 부지에 들어서는 인천아트센터는 문화단지(5만6천㎡)와 지원단지(5만6천㎡)로 나뉘어 개발된다.

문화단지에는 1천70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대·중·소 공연장, 대학 수준의 예술학교(Music, Design School), 공연기획과 제작을 위한 프로덕션 스튜디오, 도서관, 극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세계적인 문화공간인 뉴욕의 ‘링컨센터’, 도쿄의 ‘도쿄 오페라시티’ 등이 지닌 문화시설과 콘텐츠를 모두 갖추게 된다. 인프라면에서는 체험기능과 생산·교육·부대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면에서는 클래식·대중음악·실용예술 등을 담아 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문화복합단지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대형 콘서트홀은 바다를 끼고 입지를 이용해 수변공간은 물론 중앙공원과 연계해 인천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건설된다. 또 대학 수준의 예술학교를 지어 운영하고 공연예술 제작을 위한 아트 아카데미를 유치하기로 했다.

지원단지에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민국체교류센터와 이민사 역사관, 호텔, 오피스 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아트센터가 완공되면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하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가 이곳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상설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더불어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각종 세계적인 공연이 연중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훈 씨는 협약식 기자회견에서 “인천아트센터 건립계획은 한국 내 음악, 문화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획”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천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아 각 나라의 주니어 뮤지션을 잘 키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국위 선양과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아트센터는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핵심이다. 주변 경쟁도시인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을 넘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이 될 것이다.🐦

2007 Incheon World Opera Festival

세계 최고 수준의 정통 오페라가 인천 세계오페라페스티벌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체코 스테트니 오페라 극장의 오페라 <카르멘>과 이탈리아 제노바 오페라 극장의 <라 트라비아타>가 공연된다. 화려하고 섬세한 감각과 독특한 무대를 표현하는 대가들의 무대인 프라하의 오페라 <카르멘>, 뛰어난 음악적 해석과 탁월한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대가들의 향연인 오페라의 진수 <라 트라비아타>. 가을의 문턱에서 그 향연 속으로 빠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체코 프라하 스테트니 오페라 극장 초청  
Opera Carmen

일시 \_ 8월 31일(금) ~ 9월 2일(일)  
금·토 오후 7시 30분 / 일 오후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02-3476-6224~5(www.besetooopera.or.kr)



‘파멸을 부르는 유혹의 몸짓, Carmen!’

체코 프라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스테트니 오페라 극장’은 널찍한 객석과 뉴 로코코양식의 데코레이션으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장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훌륭한 오페라 가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극장으로 안나 바빌덴부르크, 베르타 라우테레르, 넬리 멜바, 엔리코 카루소, 티노 파티라 등 명성 있는 솔리스트들이 공연한 바 있다.

<카르멘>은 스페인의 세비리아를 배경으로 휘도빅 알레비(1834-1907)와 앙리메리야크(1834-1897) 두 시인이 집필하고 비제가 곡을 붙인 오페라이다. 1875년에 작곡됐고 같은 해 3월 파리 오페라 코믹 극장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스페인의 세비리아를 무대로 정열의 집시여인 카르멘과 순진하고 고지식한 돈 호세와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극 중 각 막마다 나오는 전주곡과 제1막의 <하바네라>, 제2막의 <집시의 노래> <투우사의 노래> <꽃노래>, 제3막의 <미카엘라의 아리아>, 제4막 <카르멘과 호세의 2중창> 등이 유명하다. 지휘는 ‘Jiri Mikula’ 연출은 ‘Zdenek Troska’가 맡으며, 정열의 여인 카르멘 역에는 ‘Galia Ibragimova’, 돈호세 역에는 ‘Leonardi Mario’ 등이 출연한다.

이탈리아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오페라 극장 초청  
Opera La Traviata

일시 \_ 9월 7일(금) ~ 9월 9일(일) 금·토 오후 7시 30분 / 일 오후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02-3476-6224~5(www.besetooope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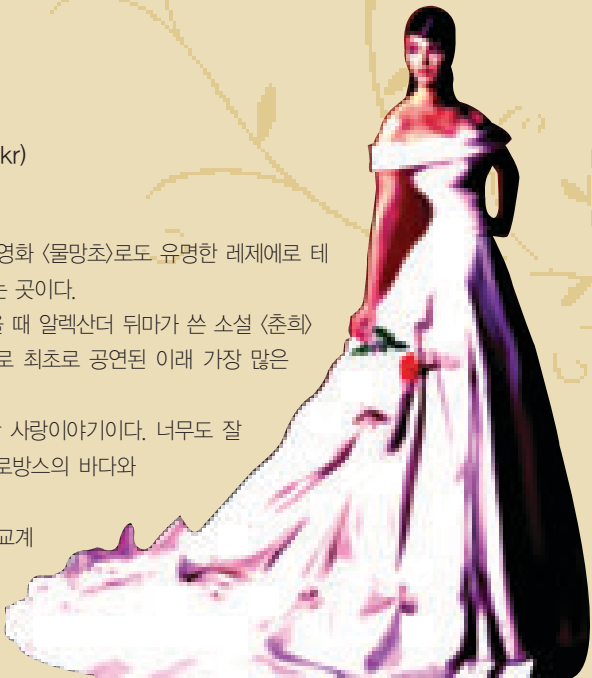
‘모든 이의 외면 속에 사랑을 외친 여인이여!’

이탈리아의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은 1834년 제노바의 중심인 페라리 광장에 준공됐으며 영화 <물망초>로도 유명한 레제에로 테너 ‘페루치오 탈리아비니’를 비롯한 거물급 성악가들이 공연하는 제노바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길을 벗어난 여인, 방황하는 여인’이란 뜻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베르디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알렉산더 뒤마가 쓴 소설 <춘화> (La dame aux camelias)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춘화>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공연된 이래 가장 많은 상연기록을 세우고 있는 오페라다.

프랑스 고급 사교계의 유명한 창녀 비올레타와 그녀를 사랑하는 순진한 청년 알프레도의 애절한 사랑이야기이다. 너무도 잘 알려진 제1막의 <축배의 노래>를 포함해 <아, 그이인가?> <언제나 자유롭게>와 제2막에서의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 제3막의 <지난날이여 안녕> <파리를 떠나서> 등이 유명하다.

이 작품의 지휘와 연출은 각각 ‘Corrado De Sessa’와 ‘Copede’ Enrico’가 맡았으며 파리 사교계 밤의 여왕이자 비련의 여주인공 비올레타 역에는 ‘Mina Taska-Yamazaki’와 비올레타의 연인 이자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 알프레도 역에는 ‘Ignacio Encinas’ 등이 열연한다.



# 현충시설 돌아보며 조국사랑 몸소 느껴



인천보훈지청과 한국청소년인천광역시연맹은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인천 청소년들이 지역의 현충시설을 돌아보고 지역사랑운동을 확대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게 하는 ‘인천사랑 나라사랑’ 청소년 보훈캠프 · 청산리대첩 독립군 체험캠프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주변국의 자국중심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호국의지를 다지는 실천이 필요한 시기에 기획되었다. 인천지역 청소년이 인천사랑과 나라사랑운동의 주체로써 문화시민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지역 내 현충시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게 했다. 또한 또래간 호국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이 곧 나라사랑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주인의식과 나라사랑의 의지를 고취시켰다.

8월 3일 참가자들은 오전 9시에 시청 앞에서 집결하여 수봉공원에 도착해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우선 송권면 인천보훈지청장의 특강과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의 후손 허계오르기(키르기즈스탄 출신) 씨의 특별 강의를 있었다. 이어

전쟁의 아픔을 품고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분단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는 애기봉과 김포지구 전적비를 둘러보며 조국수호의지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의지를 고취시켰다.

2일차에는 독립군 체험 서바이벌 게임이 있었다. 독립군의 기초훈련과정을 체험케 하고 서바이벌 장비를 이용하여 청산리대첩을 재현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독립군들이 숭고한 목숨을 바쳐 치열하게 치뤘던 청산리 어랑촌 874고지 전투처럼 고지쟁탈전 등을 통해 선조들의 호국의지를 몸소 느꼈다.

마지막 3일차에는 강화 마니산수련원 야외수련장 일대에서 ‘나라사랑 과정’ 활동이 있었다. 청소년들이 각종 장비와 교자재를 이용해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익히고 위기상황에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력을 기르게 하는 과정이었다. 국궁 활쏘기와 레펠 강화훈련 그리고 나침반 등을 이용한 생존훈련 등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3일 동안의 거친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고된 훈련을 통해 지역사랑과 나라사랑 그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슴 깊이 새겼다. 🐦

# The museum is wonderful, especially aquarium

인천과학상설전시관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이해하고 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체험 교육 현장이다. 전시관에는 항상 놀거리와 만질거리, 탐구할 거리가 풍부하다. 상설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과학 놀이’와 만나게 된다. 전시물과 과학 기구들을 만지고 실험하며 즐거운 과학놀이를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과학상설전시관에서 할 수 있는 대화를 알아보자.



Museum Guide : Hello sir! Did you enjoy your visit today?

Visitor : Yes, the museum was wonderful. I especially enjoyed the aquarium.

Museum Guide : That's fantastic. Did you get a chance to see the planetarium on the second floor?

Visitor : Yes, I did. I learned a lot about constellations.

Museum Guide : I like the planetarium as well. The chairs are so relaxing.

Visitor : My son really enjoys science. He loved the hands-on exhibits on the third floor.

Museum Guide : Make sure to come back again soon. The new fourth floor exhibitions will feature the latest discoveries in bioengineering, space aviation and many other scientific topics.

Visitor : Wow, thanks for telling me.

Museum Guide : You're welcome. Bye, bye!

Visitor : Bye, see you again soon.

전시관 가이드 : 안녕하세요. 오늘 관람은 즐거우셨나요?

방문객 : 예, 전시관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수족관이 좋았습니다.

전시관 가이드 : 그러셨어요? 좋네요. 2층 천체 투영기를 보실 기회는 있으셨나요?

방문객 : 예, 별자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전시관 가이드 : 저도 천체 투영기를 좋아합니다. 의자가 매우 편안하지요.

방문객 : 제 아들이 과학을 정말 좋아해서 3층에 있는 체험관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전시관 가이드 : 다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4층 전시관에는 생명공학, 정보통신, 우주항공과 많은 과학적인 주제들에 대한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것들이 전시될 것입니다.

방문객 : 그래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관 가이드 : 별 말씀을요. 안녕히 가세요.

방문객 : 안녕히 계세요.



글 · Bill Rohde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강사





“찢리면 붉은 피가 날 듯한 거친 들장미, 카르멘”

임.미.희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위낙 음악에 대해 문외(門外)인 데다가 오페라는 더더욱 백지(白紙)여서 여인이 말하는 것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물론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옆에 앉은 여인, 임미희(林美姬) 단장이 매우 특이하고도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미녀여서 그만 잠시 다른 생각에 빠졌던 것이 더 문제였다. 듣지는 않고 온통 다른 생각, 저 아라비아를 잇는 비단길 그 근처에 대한 상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었으니 무엇 하나인들 제대로 기억해낼 수가 있을꼬.

더구나 그날 빗줄기는 세차게 퍼부어 공교롭게도 <칸타타>라는 이름을 가진 다방 유리창을 못 견디게 들뜨게 두드려대고 있고, 언뜻 보기에 영락없이 낙타 등에 얹혀 만 리 길을 왔을 듯한 여인은 사진작가가 손가락을 찍든, 옆얼굴을 찍든 상관없이 그 맑고 밝은 성격을 그냥 드러내고 있었으니, 그래서 '미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은 하나 같이 다 아름답다 하는 식의 도저히 상식에 걸맞지 않는, 실로 턱

없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종내 아리안족이니 무슨 족속이니 하고 참을 수 없는 무식과 경망(輕妄)을 드러내자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여는 것이었다.

“이태리 로시니 국립음학원에 유학해 있을 때 그 비슷한 소리 가끔 들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남편은 뻔히 동양 사람으로 아는데 제게는 스페니시? 이렇게 조심스레 묻곤 했어요.”

표정은 영판 나 정말 그렇게 생겼나요? 하는 투였다. 그렇게 보면 이 인천 여자의 몸속에 정말 스페니시의 피가 섞인 것 같기도 하다. 정말 카르멘의 피가 흐르는 듯 고혹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는 우연이면서 또 조물주의 절대 점지(點指)의 뜻인 것이다. 비단길 쪽이든 스페인 방향이든, 이마며, 콧날이며, 미간이며, 그린 듯이 잡힌 쌍꺼풀은 이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야기가 번져, 음악이나 오페라와는 전혀 상관이



그러나 학교는 성악과가 아닌 어느 신학대 종교음악과에 진학했다. 인천여고를 졸업할 무렵에는 ‘아버지가 걸으신 길’에 가까이 쏠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시 경희대 음대 성악과로 진로를 바꾸었다.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대학에서 네 살 위 남편 김덕진(金德鎭) 씨를 만난 것도 행운이다. 남편은 바리톤 가수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메조소프라노, 바리톤! 다소 밑의 음역(音域),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듯 대화하는 두 가수 부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잠시 틈을 보이는 순간, 그때 여인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달에 인천여성오페라단을 창단했어요. 7월 13일이었으니까 한 달 남짓 되었네요.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창단 취지는 뭐, 오페라는 인생의 모든 면이 녹아 있는 축소판이니까, 누구나 감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제공, 그리고 관객과 함께 같이 삶을, 인생을 즐긴다,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오페라는 절대로 어렵지 않다, 이 한 마디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와 오페라가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뜻을 모은 동지들 모두가, 인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하는 사람, 또는 인천 소재 학교에 출강하는 사람들로 인천과 연고가 있는 성악가들이라는 것. 그렇게 모인 그 12명 대부분이 이태리, 러시아 등 음악 선진국에 유학했던 사람들이며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가진 실력자들이라는 이야기.

둘러앉은 인간들이 변변히 오페라 한번 감상하거나 관람

없는, 누구는 정통 몽골리안, 누구는 손 코넬리, 누구는 일본계, 누구는 남방계, 누구는 북방계, 러시아, 중국, 서안(西安), 비단길, 우랄 알타이, 파미르고원을 지나 중앙아시아 일대의 무슨무슨 키스탄들을 거쳐 종횡무진 인종을 이야기하다가, 심지어 안주로 나온 그 맛있는 돼지 족(足)에 게도 서슴지 않고 인간의 종족명을 붙였던 것이다.

여인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한다. 목사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목사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인의 아버지는 예배와 선교에 있어 음악의 역할을 중히 여기는 분이셨고, 그런 까닭에 여인이 자연스럽게 노래, 음악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아버지는 일찍 소천(召天)하셨다.

한 바 없는 야생에 가까운 무리들이었지만 비단길 여인, 임미희 단장의 나긋하면서도 열기가 어린 언변에 다소곳이 앉아 고개들을 끄덕인다. 하늘은 미인에게 고운 목소리와 멋과 거기에 알맞은 평강 감리교회 집사라는 직함과 오페라 단장이라는 역량을 주신 것이다. 더구나 여인은 적어도 카르멘 연주 하나로는 세계 정상급이 아닌가. 그래서 이 드센 무리들은 단번에 감화가 되어 지극히 유순한 양떼로 변하고 만 것이다.

해서, 여인의 이야기는 내친김이 된다. 계속 다음 달에 있을 정식 창단 공연 계획을 말한다. 9월 7일 ‘감동’을 주제로 노량진 기독교회관 CTS홀에서 창단 공연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감동! 다시 말해서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진한 상호 교감을 갖도록 1, 2부는 오페라 하이라이트만 모은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3부는 오페라 무대로 꾸며진다는 것을 설명해 내려간다. 그리고 끝에 가서 남편은 2부에, 여인 자신은 3부 카르멘에 출연한다는 것까지.

거기까지 말하고 나자, 여인의 눈동자는 정말 ‘스페인시 아이즈’ 내용 그대로 푸른빛을 띠며 빛나는 것이다. 아, 카르멘의 눈빛이 저럴까. 생전 듣고 본 적이 없으니 고작 ‘블루 스페니시 아이즈 티어 드롭스 아 폴링 후렴 유어 스페니시 아이즈...’ 집 리브스가 부른 스페니시 아이즈의 그 녹아들 듯 부드러운 선율과 애뜻함이나 기댄다. 카르멘, 그 눈동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은 열정과 자유분방함과 집시 여인의 뜨거운 피가 아닌가. 그러나 여인, 임미희 단장은 이내 자기 혼자만의 밝고 명랑하고 반듯한 웃음으로 고쳐 웃을 줄을 안다.

“화려함과 섹시함이 조화를 이룬 폭발적인 연기와 성량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카르멘으로 평가받고 있는 임미희 씨가 찢리면 붉은 피가 날 듯한 거친 들장미 같은 카르멘의 사랑을 연출한다.”

공연 기사에 적힌 내용대로 여인은 들장미 같은 새빨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정상급 카르멘 연주자 메조소프라노 임미희’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여인의 무게에 눌려 여인이 비록 시(詩)를 읽지 않고, 오로지 성악을 위해, 건강한 육신을 위해, 돼지 족이나 삼겹살 같은 음식을 마다하지 않는다 해도, 무리들은 오로지 한마음으로 모두 ‘가자! 임미희를 보러 가자! 들으러 가자!’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몽골리안이나 일본계나 남방계나 막론하고 여신에게 경배하는 착한 신자들처럼.

그쯤 해 놓고 여인은 도로 특유의 장난기 같은 낙천(樂天)으로 돌아온다. 오페라단을 이끌려면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신경 쓸 일 또한 적지 않을 터인데도 여인은 마냥 즐겁고 행복해서 차라리 무슨 아름다운 열병에라도 걸린 듯한 표정이다. 꿈이 있어서, 사십 넘어서도 꿈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여인이 입을 검은 의상을 입고 뒤늦게 달려온 남편의 표정은 더 천국(天國)이다.

“원래 살짝 짝짝이였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여인은 보조개가 오른쪽 하나뿐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실은 눈도 짝짝이었다고 실토한다. 그리고 그 눈 하나는 바로잡았다고 말한다. 생각이 시원하고 건강하다. 아마 일흔여덟 살이 되어도 카르멘은 머리가 세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와글거리는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빗속을 걸으면서 문득 서안(西安)의 서쪽, 그 저쪽으로는 여기와 반대로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양파의 흰 꽃이 피는 돌밭, 거기쯤 머리에 천을 두른 한 왕녀가 낙타를 탄 채 흔들리며 가는..., 그런 상상을 하다가, 또 그냥 무턱대고 생각해 낸 덕담이 그것이다. ♡





## 얼굴을 직접 보던 때가 그리구나

20여 년 전까지 우리 집은 전북 완주군이었고 작은댁은 경기도 여주군에 살았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명절 때 뿐이었다. 작은댁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당시 숙부님 일행은 여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다시 열차나 아니면 고속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나는 명절에는 작은댁 식구들 기다리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숙부님이 당시 옷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곳에 근무하셔서 옷이나 양말 등을 선물로 갖고 오셨기 때문이다. 당시 작은댁은 손님이었기 때문에 음식 장만은 항상 어머니께서 하셨다. 그리고 작은댁 식구들을 대접하였다.

지금은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작은댁 식구들도 비교적 가까운 안양에 거주하고 계셔서 명절 이외에도 시간만 내면 수시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금은 전화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다 보니 작은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사 후 몇 년 후에 작은댁 식구들이 오셔서 함께 송편을 만들고 식사를 하는데 사촌동생이 숙모님께 “엄마는 큰엄마보다 음식 솜씨가 없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들은 숙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누구나 각각의 달란트가 있고 음식의 맛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그 동안 어머니의 입맛에 정든 내 모습도 돌이켜 보았다. 앞으로 영원히 어머니의 입맛을 누가 제공해 줄 것인지 말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추석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되어 아쉽다. 아, 돌이킬 수 없는 이 추억. 과거의 모습처럼 서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던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까? 이제는 아쉬움의 추석이나 명절이 된 나날들...

박종형\_남동구 구월4동

## 성묘 가는 길의 추억

여름 더위에 지쳐 있는데 벌써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과 추석이 다가오니 세월의 빠름을 느낀다. 내가 세 살 때에 증조부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매년 한식과 한가위가 다가오면 서구백석에 위치한 황해도민 공동묘지에 묻혀계신 증조부님께 성묘를 갔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만해도 집에 자가용이



없어 수봉공원까지 올라가서 17번 버스를 타기위해 오래 줄을 서 있다가 만원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겨우 탄 버스에서 멀미를 심하게 하여서 중간에 내려서 멀미가 좀 멎은 후에 다시 버스를 타고 가서 성묘를 간 기억이 난다. 이렇게 힘들게 성묘를 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마이카 시대라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성묘를 가니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했다는 생각도 든다. 이번 한가위에도 부모님과 집사람 그리고 아홉살 딸아이를 데리고 성묘 가는 길을 상상해 본다.

오원택\_연수구 옥련동



## 잊혀지지 않는 그날

결혼한 지 10년 만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가정을 꾸리며 행복에 젖을 무렵 나에게 다른 행복이 찾아왔다. 셋째 아이가 생긴 것이었다. 이렇게 크나큰 행복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무척 망설였다.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태교를 하며 몸을 관리했다. 그해 2003년 추석은 다른 해보다 좀 빨리 찾아왔고 그 때 나는 임신 7개월 임신부였다. 남편이 집안의 장남이기 때문에 시골에 차레를 지내기 위해 내려갔다. 가는 도중 양수가 흘러 고속도로에서 119 구급차로 이송해서 가까스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우리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인지 무럭무럭 잘 자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다섯 살이 되어 간다. 일찍 조산을 해서인지 아직 아이가 걷지를 못한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재활치료에 여념이 없다. 집중치료를 시작해 보니 좋아지는 기색이 하루가 다르다. 우리아이에게 집중치료가 큰 힘이 되어서 꾀꾀하게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빌어 본다. 굿모닝인천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알고 있는 모든 분과 멀리서 여러모로 격려해 주는 마리중 8회 모든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오덕자\_부평구 일신동



## 추석날의 팔시루떡

공교롭게도 추석날이 남편 생일이다. 명절이면 으레 시댁으로 차레를 지내러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족끼리 남편 생일상을 따로 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댁에 가면 머느리인 나는 정신없이 바쁘다. 송편 빚으랴, 전 부치랴, 나물 준비하랴, 또 종가집이라 인사오시는 손님 대접하랴 정말 바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생일상 준비하느라 더 분주하시다. 언젠가 어머니께 명절 음식이면 댕지 다른 음식까지 더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드렸다가 혼난 적이 있다. 돌아가신 조상님 차레상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내 자식 생일상도 당신에겐 더 없이 중요하단다. 당신 자식 귀하게 여기시고 끔찍이도 아끼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음식이 많아 처치 곤란할 지경인데 제발 조금씩 하시자고 말씀드리는데도 어머니는 아들 생일상에 올릴 동그런 팔시루떡은 매해 빠짐없이 하신다.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몸단장 하시고 맑은 정안수 떠 놓고 떡시루 앞에서 두 손 모아 소원을 비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정성 덕분에 남편이 오늘도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힘을 얻는지도 모르겠다. 추석날 아침에 먹는 팔시루떡. 웬지 어울리지 않은 듯 싶지만 우리 집은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남편의 특별한 생일상은 어머니께서 계시는 한 매해 계속 될 것이다.

조혜미\_부평구 삼산동

## 즐거운 한가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추석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며 편안하게 해준다. 날씨도 적당히 춥지도 덥지도 않고 시골가는 도로 양쪽 옆 풍경은 보기만 해도 좋고 차가 밀리는 것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며 산에 올라 밤 딸 생각에 기쁘기만 하다. 작년 추석 때는 싸리나무 빗자루도 만들어보았다. 옛 선조들의 자연친화적인 지혜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사과밭에 사과가 어찌나 많이 열렸는지 마치 빨간 꽃밭 같았다. 나무가 기운도 많지 어떻게 그 많은 사과를 짊어지고 있을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래를 따 보았다. 참녕쿨처럼 뽕은 넉쿨 식물이었다. 맛도 생김새도 꼭 키위 같았다. 깊은 산 속에 살아보지 않았던 나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풍성했다. 시골서 가득 실은 호박, 밤, 다래, 여러 가지 나물들 등등 행복을 가득 싣고 왔다.

장월란\_남구 용현2동

## 세배하는 날

“세배하는 날 신난다! 조금만 있으면 추석이다.” 아들 녀석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매일 매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엄마는 음식 준비하랴, 청소하랴, 분주한데 고생하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아들 녀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낮잠 자는 남편에게 서운한 생각이 든다. 생각은 생각뿐이고 다가오는 추석은 날 기다려주지 않으니 추석 일주일 전에 조기를 사다 소금 쳐 말려야 하고 삼사일 전에는 물김치를 담가야 하고 이틀 전에는 식해도 시원하게 만들어 놓아야겠고 추석 하루 전에는 갈비를 재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아 놓는 것이 끝나야 추석명절 준비가 다 되었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는데 명절을 준비한 지 십년이 넘었건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 때마다 점점 어렵고 서툴러 힘이 드는 것은, 하기 싫다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어서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추석 당일이 되고 드디어 아들 녀석의 기분을 최고로 만든 추석맞이 이유가 밝혀졌다. 가엾게도 추석명절에도 설날에 세배하듯 절을 하고 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모양이다. 당시 일곱 살이던 아들 녀석은 열세 살이 된 지금 그 때의 귀엽고 깜직한 생각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육년 전 추석에는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과 참 많이도 웃었는데 올해에는 또 다른 무엇으로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김영자\_남동구 도림동

## 다음달 글의 테마는 ‘직업’

다음달 테마는 ‘직업’입니다.

‘직업’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물사랑사진 공모전 열립니다

물사랑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4회 기업메세나(Mecenat)를 통한 물사랑 사진 공모전이 열립니다.

- **작품주제** : 인천지역의 물을 소재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물 사랑 정신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작품

- **참가방법**
  - 제출할 작품 사진은 jpg형식
  - 1인 2점만 응모 가능합니다.
  - www.icwaterlove.org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올립니다.  
물사랑 사이트 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디지털 이미  
지 첨부 → 전송
- **접수기간** : 8월 16일(일)~9월 16일(일) 오후 6시
- **유의사항**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와 주최측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 주제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서의 입상 경력이 있는 작품은 추후 입상이 취소됩니다.
  - 출품작에 대한 모든 초상권은 일체 작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발표** : 10월 15일 http://www.icwaterlove.org 게재
- **공모부분 및 사상내역**

일반부분(대학생포함)			학생부분(초·중·고등학생)		
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300만원	대상	1점	상장 및 노트북
금상	2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금상	2점	상장 및 디지털카메라
은상	3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은상	3점	상장 및 MP3
동상	5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상	5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10만원)
장려	15점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장려	15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5만원)
입선	20점	상장 및 상금 10만원	입선	30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3만원)

- **문의** : 인천녹색연합 ☎ 548-6274

시민교육연극센터 특강 열립니다

시민교육연극센터에서는 읽기와 말하기 특강을 엽니다.

- **일시** : 9월 3일(월)~9월 8일(토) 저녁 7시~10시(총18시간)
- **교육대상** : 20세 이상 성인
- **교육내용** : 춘향전(읽기 기초 및 연극대사 실습)
- **수강료** : 무료
- **접수** : 선착순 20명
- **문의** : 시민교육연극센터 ☎ 866-4408, 011-351-1262

직장인, 교사, 대학생을 위한 환경해설교육

생명이 꿈틀대는 내 고향 인천에 감동하며, 신음하는 인천의 모습에 함께 아파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 **교육기간** : 10월 11일~11월 18일(2개월)
- **모집인원** : 총 20명
- **교육시간** : 목요일 저녁 7~9시(실내), 토요일 10~12시(현장)
- **교육장소** : 인천녹색연합 사무실, 현장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홈페이지 참고), 입학금 : 3만원
- **교육내용** : 녹색교육이란, 숲생태계의 이해, 식물의 이해, 갯벌의 이해, 자연명상, 녹색 문학 등(총 13강좌)
- 자세한 내용은 녹색연합 홈페이지(greenincheon.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녹색교육부 만두 ☎ 548-6274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무상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산업현장의 평생학습 풍토 조성 및 근로자 능력개발촉진으로 인력부족 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지원하고자 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무상지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대상**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rdkorea.or.kr) 참조
- **지원금액** : 학기당 200만원 이내 등록금(총 800만원)
- **접수기간** : 9월 3일(월)~9월 14일(금) 단, 우편접수는 9월 7일(금)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 820-8642

2007 남동복지 한마당이 열립니다

- **일시** : 9월 7일(금) 오전 10시~오후 8시
- **장소** : 남동구청 체육광장
- **주관** : 남동구,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참여기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기타 주민서비스 관련기관, 단체 등
- **참여대상** : 지역 내 모든 시민
- **행사내용**
  - 서비스체험, 정보·공연마당 : 8개 부스 운영
    - 8대 서비스 분야별 특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체육광장)
    - 공공·민간서비스 홍보관, 복지생산물 전시 판매 등 (체육광장)
  - 복지나눔마당 : 주민, 단체, 기관 참여(체육광장)
    - 이웃돕기 참여관, 사랑의 바자회, 먹거리장터, 헌혈참여관 등
  - 이벤트프로그램 : 개막식, 복지퍼포먼스 등
- **문의** :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협력팀 ☎453-2543~ 6

교실 밖에서 철학하기

- 지루하기만 했던 여름도, 후덥지근했던 우기도 뒤로 밀쳐내고 시원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읽기가 더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계절 나가는 없을 듯하네요. 우리는 지난 4년동안 <노마디즘>, <개념 뿌리들>, <만화의 이해> 등을 읽어 왔습니다. 함께였을 때 혼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책읽기의 참맛을 느꼈습니다.
- **텍스트** : 미셸 푸코 <성의 역사>(출판사 : 나남신서, 총 3권)
- **주기** : 격주 월요일
- **시간** : 오후 7시~9시
- **장소** : 스페이스 빔(배다리 한책방 골목내 옛 양조장 건물)
- **방법** : 일정한 분량을 나눠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
- **회비** : 간식비(그 때 그 때 필요 시)
- **첫모임** : 9월 3일(월) 오후 7시
- **정보** : 그 동안 책읽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미술활동가에서 교사, 공무원, 주부까지 다양합니다. 책 읽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듯 싶습니다.
- **문의** : 김성배 ☎ 011-9958-7059

운전면허, 기능교육 받으세요

2007년 4월 28일 도로교통법 제83조제4항제2호 '장내기능시험 응시 전 기능교육 의무화'가 신설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3시간)**
  - 대상 :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사람
- ※ 단, 면허취소 후 재 응시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송도소재)에서 실시하는 면허취소자 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시기 : 장내기능시험 접수 전(교육이수 후 시험접수 가능)
- 교육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장내기능교육(3시간)**
  - 대상 : 제1·2종보통 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사람
  - ※ 이미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면허취소 후 재응시자는 제외
  - 시기 : 장내기능시험 실시 전(시험접수 후 교육가능)
  - 교육장소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내 용 : 장내기능시험에 필요한 기능교육
- **운전면허 안내전화** : 콜센터 ☎ 1577-1120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이용시간 안내**
  - 평일(월~금) : 오전 9시~오후 6시
  - 토요일(공휴일, 국경일 제외) : 오전 9시~오후 1시
  - ※ 월 1회 토요일 특별시험 실시
- **문의**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811-0113

마술이야기, 상담페스티벌 참여하세요

동구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마술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 **내용** : 마술의 역사, 간단한 마술, 공연을 위한 마술 등 체계적인 마술기법 배우기
  - **일시** : 9월 8일, 10월 13일, 11월 10일  
– 총3번 토요일 오후 1시
  - **대상** : 중·고등학생 10명(선착순 모집)
  - **장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영상다목적홀
-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페스티벌이 열립니다.
- **내용**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스트레스 점검, 스트레스 유형별 대처 방안 등
    - 부대행사 : 스트레스 해소하는 프로그램, 핸드폰 고리 만들기 등
    - 링크시장 : 모아온 링크를 예쁜 팬시용품과 교환해 드려요~
  - **일시** : 8월 ~11월
  - **장소** : 박문여자고등학교, 박문여자중학교, 동산중학교, 영화정보고등학교 등 4개 학교
  - **대상인원** : 축제참가자 약 200여명
  -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 문화사업팀 ☎ 761-1318

인천사랑지도자아카데미 교육 열립니다

인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인천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 품격 있는 시민생활문화가 주도하는 고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민 모두의 몫입니다. 인천사랑을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인천사랑지도자아카데미가 열립니다.

- **제목** : 인천사랑지도자아카데미
- **교육기간** : 제61기 9월 11일(화)~9월 13일(목) 3일간  
제62기 10월 16일(화)~10월 18일(목) 3일간  
오전 10시~오후 3시30분
- **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매회 30명 선착순 모집
- **내용** : 강의6강 / 소그룹활동 / 현장답사 / 개강식, 수료식 / 인천의 역사 / 문화 / 경제 / 미래 / 인천사랑운동론 기본교육
- **장소** : 시티은행 8층(구 경기은행 본점)
- **운영의 원칙** : 80%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의 원칙/민주적 운영의 원칙/소그룹 운영의 원칙/규율준수의 원칙
- **참가비** : 없음(중식 제공, 기념티 지급)
- **신청문의** :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439-0493~5



## 생태공원 지킴이 양성교육 열립니다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도시공원을 생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은 실천! 이를 위해 생태공원 지킴이 양성교육이 열립니다.

- 교육기간 : 9월~10월(매주 2회, 오전 10시 ~ 12시)
- 대상 : 교육 이수 후 동네에서 생태공원만들기 자원봉사 하실 분
- 장소 :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교육실  
(부평삼거리역 2번출구) 및 현장 교육
- 참가비 : 과정별 2만원

생태 공원 지킴이 양성교육 초급과정		
일 정	제 목	
9월 4일(화)	1강	개강식 / 인천의 생태환경과 지킴이 역할
9월 6일(목)	2강	도시에서 생태와 공원
9월 11일(화)	3강	식물 I (계양산)
9월 13일(목)	4강	조류 I
9월 18일(화)	5강	생태공원견학 (길동, 한강생태공원)
9월 20일(목)	6강	수서 생물 I
10월 2일(화)	7강	인천도시에 살고 있는 식물 (인천대공원)
10월 4일(목)	8강	수료식 / 주민이 만든 생태공원 사례

생태 공원 지킴이 양성교육 중급과정		
일 정	제 목	
10월 9일(화)	1강	개강식 / 도심속에 생태공간 만들기
10월 12일(금)	2강	공원모니터링 실습 (부평공원)
10월 16일(화)	3강	인천에 사는 식물 (철마산 )
10월 19일(금)	4강	조류II
10월 23일(화)	5강	수서생물II
10월 26일(금)	6강	도심에서의 생태공원의 역할
10월 30일(화)	7강	식물II (국립수목원)
11월 2일(금)	8강	수료식 / 마을에서 공원만들기 사례

- 접수문의 :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 426-2621, 507-2811~2

## 한글날 기념 시민·학생 백일장열립니다

인천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한글날 기념 백일장이 열립니다.

- 일시 : 9월 29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중구 (자유공원) 일대
- 참가자격 : 인천시내 초·중·고 재학생 및 일반시민(대학생 포함)
- 시상 : 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별로 시상(각부 <시, 산문 2개 분야> 장원, 차상, 차하, 입선 각 2명씩) 상장 및 상금 시상
- 문의 : 인천문인협회 사무국 ☎ 863-1797

## 고유가 시대, 경제운전 하세요

고유가 시대, 알뜰한 경제운전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운전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연료소비율을 20~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불필요한 물건을 싣지 않는다  
보통 10kg의 중량 증가는 50km의 주행에서 약 80cc의 기름을 더 소요한다.
-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상태를 점검한다  
보통 공기압이 20% 정도 부족하면 연료는 5% 정도 더 소모되고 타이어의 수명은 약 15% 정도 감소된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표준 공기압보다 10~20%를 올려 주행하면 연비 증가 및 타이어 마모를 예방할 수 있다.
- 급출발, 급가속과 급감속을 피한다  
급출발과 급제동은 연료의 낭비뿐만 아니라 엔진과 타이어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급출발 10회에 약 100cc, 급가속 10회에 약 50cc의 연료가 더 소비되어 연료의 낭비를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
- 경제속도로 정속 주행을 한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제한속도를 10% 초과하여 시속 110km로 주행하면 연료 소비는 7.2% 정도가 증가하고 시속 130km로 주행하면 연료 소비율은 20~30%가 더 소비되며 사고의 위험도 가중된다.
- 자료제공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 830-6162

## 자동차보험 소비자 정보 10선

- 사고예방관련 정보
  - ① 차량 안전점검을 받은 후 출발하라
  - ② 졸음운전 시 휴식 또는 교대운전하라
  - ③ 운전중 DMB시청 및 휴대전화 통화를 금하라
- 사고후 조치관련 정보
  - ④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확대를 예방하라
  - ⑤ 車대車 사고발생시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라
  - ⑥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⑦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자손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자동차보험 계약관련 정보
  - ⑧ 휴가기간동안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을 이용하라
  - ⑨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라
  - ⑩ 렌터카 이용시 자기차량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홍보팀 ☎ 02-3771-5907

## 인천월드컵경기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인천월드컵경기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신청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프로그램	운영 장소	운영 일시	강습요일	강습료
유소년 축구클럽	보조 경기장	저학년반 : 오후 5시~7시 고학년반 : 17시~19시	월 수 화 목	5만원 (년중 접수)
주부 자전거 교실	야구장 1층	20기 8월 27일 ~ 9월 7일 21기 10월 1일 ~ 10월 12일 22기 10월 29일 ~ 11월 9일 (오전 10시~12시)	월~금 (10일 2주)	2만원
단학기공	보조경기장	4월~10월 새벽 6시~7시	월~금	무료
보조경기장트랙 및 체육공원 무료 개방 (잔디사용금지)		하계(3월~10월) 오전 5시~오후 11시 동계(11월~2월) 오전 6시~오후 11시	월~일	무료

- 자세한 내용은 인천월드컵경기장 홈페이지(www.munhak.or.kr) 메인화면 → 프로그램 안내 →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월드컵경기장사업단 운영팀 ☎ 456-3020, 3026

##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열립니다

행복한 나눔장터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이웃간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고 나눔장터 정례화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자원순환사회를 형성하는 장입니다. 또한 어린이 학생들의 환경교육과 경제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며 수익금의 10%는 소외계층에게 환원됩니다.

- 나눔장터 운영계획

일 정	월별 이벤트 운영 테마	비 고
9월 8일	• 구두 재활용 '구두의 재발견'	구두
10월 13일	• 종이 재활용 '환경사랑! 종이사랑!'	신문지·종이
10월 20일	• 재활용품을 이용한 액세서리 만들기 '나만의 패션 아이템 !'	액세서리
10월 27일	•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마음' ※ 2007년도 나눔장터 폐장	폐식용유

- 참가안내 및 문의
  - 나눔장터 홈페이지(www.happynaum.com)
  - 인천시청 폐기물지원과 재활용팀 서용성 ☎ 440-3573
  - 인천YWCA 나눔장터 담당 기선희 ☎ 424-0524

##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특강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부모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인천관내 초중고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특강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 주제 : 자녀와 갈등, 행복으로 가는 길
- 일시 : 10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 강사 : 우애령(현실치료전문가, 소설가)
- 대상 : 인천관내 초중고 학부모 및 교사 250여명
- 장소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성산호대학원대학교 대강당)
- 참가비 : 무료(음료 제공)
- 신청기한 : 9월 27일~10월 15일(선착순 마감)
- 신청내용 : 참가자명, 연락처
- 접수 및 문의 : 본 상담센터 홈페이지 '교육신청게시판' 이용 (www.inyouth.or.kr) 또는 ☎ 429-5562~3 전화 접수

## 실직 고령자를 위한 교육, 취업알선 프로그램

인천경영자총협회(회장·장문영)는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고령자들의 무료 취업교육 및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1개월에 2회, 1회당 4일 일정으로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인천경총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만50세 이상의 근로의욕이 왕성한 실직 고령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취업직종은 경비, 노무뿐 아니라 생활지도사, 상담원, 보육사, 밀링조작원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8월 7일~10일, 20일~23일, 9월 3일~6일, 17일~20일, 10월 8일~11일, 22일~25일, 11월 5일~8일, 19일~22일, 12월 3일~6일, 17일~20일까지로 본인이 편한 시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천경총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인천경영자총협회 정도영 직업상담사 ☎ 428-7137

## 사업 고민 짝~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광고료(1개월·컬러기준)

표4 (맨 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백56만2천원	1백66만5천원	1백28만1천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굿모닝인천>편집팀 (☎ 440-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기간 및 장소

- 9월 3일(월)~9월 7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정형외과)
- 9월 10일(월)~9월 14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소아과)

####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 검진명

- 골다공증 검사 : 방사선 검사, 골밀도 검사(정형외과)
- 빈혈 검사 : 혈액 검사(소아과)

#### ■ 검진인원 : 정형외과 150명 / 소아과 30명

※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외과 무료검진은 만55세 이상만 실시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인사팀 ☎ 580-6652

###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 열립니다.

보훈가족과 제대군인에게 구인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 ■ 일시 및 장소 : 9월 18일(화)~19일(수) 학여울역 SETEC

#### ■ 대상 : 보훈가족과 제대군인(5년이상 중·장기복무자)

#### ■ 행사내용

- 채용관 : 인사담당자가 직접 구직자들과 1대 1 현장면접 실시
- 컨설팅관 : 이력서 및 경력관리, 창업 및 건강관리 등 직장 생활에 필요한 자기관리 요령 등 지원
- 취업지원관 : 유망 자격증 및 어학능력 향상 정보제공
- 이벤트관 : 부대행사로 각종 이벤트 및 상품 제공

#### ■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53 / 국가보훈처 [www.mpva.go.kr](http://www.mpva.go.kr)

### 명선 다도교실 수강생 모집

몸과 마음을 채우는 시간, 남구학산문화원 명선 다도교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 일시 : 9월~11월(3개월간)

- 초급반 : 매주 화·금요일 오후1시~3시
- 중급반 :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명선차인회 입회비는 본인부담)
- 취미반 : 매주 화요일 오후1시~3시

#### ■ 장소 : 인천향교

#### ■ 수강료 : 3개월 기준 3만원

#### ■ 문의 : 남구학산문화원 ☎ 866-3993, 880-4763 [www.haksanculture.or.kr](http://www.haksanculture.or.kr)

### 9월축제 행사 일정

#### ■ 제9회 강화고인돌문화축전

시간	일자	10월 4일(목)	10월 5일(금)	10월 6일(토)	10월 7일(일)
10:00~11:00			고인돌 원시체험 고인돌 문화탐방		
11:00~12:00			전통문화예술 놀이마당	전국순무요리 경진대회	전통문화예술 놀이마당
12:00~13:00					
13:00~14:00					
14:00~15:00	철종임금 등극행렬 재현 강화문화 퍼레이드	고인돌 원시체험 고인돌 문화탐방			
15:00~16:00		우리국 한마당			
16:00~17:00					
17:00~18:00					
18:00~19:00		개막식 및 축하공연(불꽃놀이)	TV 예능프로그램 공개 방송	폐막식 및 축하공연(불꽃놀이)	
19:00~20:00					
20:00~21:00					
21:00~22:00					
		고인돌 영화제상			

#### ■ 제6회 인천음식문화축제

	시간	10월 5일(금)	10월 6일(토)	10월 7일(일)
문화 행사	12:00~12:30	음식이 놀자 OX퀴즈		남구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댄스, 풍물놀이 등)
	12:30~13:00	인천명주 맞추기	자장면 빨리먹기,	
	13:00~13:30	쌀알 빨리 세기	수타 시범 면발 얇게 뽑기	
	13:30~14:00	국악, 댄스 경찰악대 공연	인천명주 맞추기	
	14:00~14:30		부침개 예쁘게 만들기	
	14:30~15:00		합합공연	음식이 놀자 OX퀴즈
	15:00~15:30		매운맛 페스티벌	인천명주 맞추기
	15:30~16:00		맨손으로 장어잡기	남사당놀이 (줄타기, 무등놀이 등)
	16:00~16:30	팝스 오케스트라		
	16:30~18:00			
	18:00~17:30	개막식		
	17:30~17:45	경품추첨		
	17:45~18:00	북한 예술단 공연	댄스 페스티벌	시민노래자랑 본선
	18:00~18:30			
	18:30~19:00			
	19:00~19:30	개막 축하 특집공개방송	7080 콘서트	폐막식 및 경품추첨
	19:30~20:00			
	20:00~20:15			
	20:15~20:30			
	20:30~21:00			
	21:00~21:15	경품추첨		
	21:15~22:30	영화상영		
참여 행사	15:00~17:00	사랑의 김치만들기 행사 빵 나눔 행사	빵 나눔 행사	
	15:00~17:00	향토, 전통 특색음식 경연대회		
	16:00~17:00	떡매치기, 엿치기		
	17:30~18:30	노인 초청 무료사식회		
	12:00~18:00	가족단위 케이크 만들기, 소망등 달기		
전시 행사	11:00~22:00	푸드존(Food Zone) : 대장금 궁중음식 전시, 인천음식 전시, 좋은식단 전시 지역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품 전시, 제과제빵 전시, 쌀 가공품 전시 등		
부대 행사	14:00~18:00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캐릭터 풍선 나눠주기		
	11:00~22:00	대표음식, 특색음식거리 먹거리 운영		

#### ■ 제4회 능허대축제

일	시간	프로그램	장소
10월 5일 (금) (전야제)	17:00~21:30	•연수구민 참여한마당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구민사상식 •능허대축제 전야제(금요일예술무대)	주행사장
10월 6일 (토)	15:00~18:00	•한중문화교류의 정심도농악놀이마당 및 중곡전통공연	주행사장
	18:00~19:00	•사신행렬 및 사신맞이 퍼포먼스	
	19:00~19:30	•2007 능허대축제 개막식	
	19:30~21:30	•개막축하공연	
	21:30~21:40	•불꽃놀이	
	13:00~18:00	역사 마당 •민속기네스(떡매치기, 줄넘기, 제기차기, 투호, 널뛰기) •백재왕, 백제이상 체험	능허대 공원
	14:00~17:00	나눔 마당 •어린이 경제체험마당 •학생사생실기대회	옥련센터
10월 7일 (일)	14:00~15:00	•역사퀴즈왕 선발대회	주행사장
	15:00~17:00	•연수 구민노래자랑 본선	
	17:00~18:00	•우리소리 & 우리몸짓	
	18:00~19:00	•해외공연팀 공연	
	19:00~20:00	•국내공연팀 공연	
	20:00~21:00	•폐막식 및 폐막공연	
	21:00~21:10	•불꽃놀이	
	13:00~18:00	역사 마당 •민속기네스(떡매치기, 줄넘기, 제기차기, 투호, 널뛰기) •백재왕, 백제이상 체험	능허대 공원
	14:00~17:00	나눔 마당 •어린이 경제체험마당	옥련센터

#### ■ 제20회 인천노동문화제

일시	프로그램	장소
<b>사전행사</b>		
8월 31일(금) ~ 9월 4일(화) 평일 19:30, 토요일 16:00 ~ 19:30	공연 연극 <체 게바라>	주안 옛 시민회관 쉼터 천막극장
9월 4일(화) 19:00	노동자문화운동 정책토론회	살과 나눔이 있는 더 해시
<b>본행사</b>		
9월 7일(금) ~ 9월 9일(일)	노동자문화운동 자료수집 및 전시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주변
9월 7일(금) ~ 9월 9일(일)	노동미술극 2007 프로젝트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주변
9월 8일(토) 19:00	창작기획음악극 <밥과일 20>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9월 9일(일) 15:00	인천풍물 대동판굿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b>네트워크 프로그램</b>		
9월 7일(금) ~ 9월 9일(일)	노동 전시해대(내막 한국현대사, 1987에서 2007까지의 노동만화들, 1987의 기억전 인천지역 노동자료 전시 등)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일대
9월 8일(토) 16:00 ~ 18:00	길거리 난쟁거리 퍼레이드, 작은 음악회, 이색 피켓 행진, 퍼포먼스 등)	인천대공원 일대
9월 8일(토) ~ 9월 9일(일)	참여 프로그램(여성의 전화, 평화의료생협, 인천생협, 마을사람들 등 참여)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일대
	나눔장터(하브나누기, 시장체험, 아름다운 가게 등)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일대

### 우리말 '뚝' 바로 알기



### 햇볕에 그을려서? (○) / 햇볕에 그슬려서? (X)

‘햇볕에 그슬려서 얼굴이 새까맣다’에서 ‘그슬려서’는 ‘그을려서’로 써야합니다. 햇볕에 살갗이 검게 되거나 쏘를 따위의 검 은 연기가 묻는 것은 ‘그을리다’이고, 사람이나 짐승의 털이 불

에 달아 약간 타는 것은 ‘그슬리다’입니다.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와 ‘쏘불에 머리를 그슬렸다’로 구분하여 씁니다.

### 이달의 국가유공자 이철(李鐵) 참전유공자 (1921. 11. 19 ~ )



이 유공자는 인천에 급파되어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현지상황을 직접 전하는 특수공작 임무를 맡았다. 당시 인천항에 261척의 함대가 정박하기 위해서 최우선이었던 팔미도 탈환을 위해 이 유공자를 비롯한 11명의 특수공작원이 투입되었다.

그는 상세한 첩보 수집을 위해 한 달 남짓 전초기지 영흥도에서 인천해역의 조수관계와 수로 및 암초 등을 세밀히 탐사한 것을 비롯하여 주변도서를 포함한 인천일원의 소상한 첩보를 수집해서 매일 맥아더 사령부에 타전했다. 그리고 전쟁보급물자 수송에 관한 세밀한 첩보와 복고군 지휘사령부 등의 위치를 정확히 탐

지해 보고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인민군 900여명의 주둔현황을 파악, 보고하는 활약으로 1950년 9월 15일 7만여명의 국제연합군이 인민군의 허를 찌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시 정보관으로 활동하다 후에 제1첩보지구대장, GOAT대 훈련소장을 역임했고 서울첩보공작활동, 대 만주공작 및 락소장 구축작전에 특수첩보공작대장으로 활동하여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

그는 예편한 후 1951년, 8240부대 경보학교훈련소 소장으로 근무했고 현재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거주하고 있다.

자료제공\_인천보훈지청 ☎ 430-0125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하는  
전어



전어는 가을철에 살이 오르고 맛이 최고이기 때문에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는 뜻으로 '가을전어'라는 말을 주로 쓴다. 전어는 청어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15cm정도 몸길이의 등 푸른 생선이며 고소한 감칠맛을 지니고 있다. 갈치처럼 위낙 성질이 급해 물 밖으로 내놓으면 금방 죽어 버린다.

집 나간 머느리도 돌아올 만큼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전어구이는 먼 동네 어귀  
에서부터 입맛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갖은 양념에 무쳐먹는 전어  
무침 또한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낸다. 무엇보다 전어는 크기가 작고 살이 많지  
않아 비늘과 핏물만 제거한 뒤 뼈 채로 먹어야 가장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뼈 채 썬 전어새끼(회)는 탱탱하고 아삭아삭하게 씹혀 살맛이 나게 할 만큼  
입을 즐겁게 한다.

우리 인천에서는 강화도와 용유도 일대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제1회 인천영어페스티벌

**일 시 : 2007년 9월 14일~16일(3일간)**

**장 소 : 가천의과학대학교**

〔원천지해설 신원수역에서 동분거리〕

**참가대상 : 일반시민, 학부모, 학생 제한 없음**

"Smile With English!"

## Festival Programs

학생영어 토론논술대회  
영어재형마을  
인천 공무원 영어경시대회  
전국학생영어경시대회  
영어영재지원프로그램  
세계문화체험(Culture)  
인천대학교 Popsong night  
아리랑 TV 제4회 어린이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영어교육 관련 초청강연회 및 심포지엄  
연세대학교어학당 Writing Contest

영어교육학회

\*본 연구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1997年12月15日：第10次

**【参考文献】** 1. 王德成, 王德成. 2004. 中国人口地理学. 北京: 中国人口出版社.

Source: [www.burtonbooks.com](http://www.burtonbooks.com)

100

영어전문사학 및 사립 / 영어전 영어교육 프로그램 / 영어전문 사립교육기관 /  
영어교육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 각종 영어시험 및 사학대학 교육프로그램 /  
영어전영문교육프로그램 / 대학부설 어학 교육기관 / 영어교육을 할수있도록 초·중·고교 /  
대학

■참가신청 : 홈페이지 참고 [www.englishfestival.co.kr](http://www.englishfestival.co.kr)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하신분은 무첨한 경품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 소 : 인천국제공항센터 ■주 관 : 인천영어숙제추진위원회 ■주관방송사 : 인천영어방송 ■주 회 : 인천영어숙제추진위원회 사무국 032-872-9800





































